

예술 한뼘 0| 프로젝트

설치하는 진행하였습니다. STX 반월발전소 축열조에 한글작품을 설치한

강익중,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안산 공단 지역에 공공미술 작품을 예술프로젝트를

경기문화재단

홍현숙 · 이주호,

근로자들의 그림을

모아 해성아이다의

담을 대형 철판

작업으로 완성한

의학과 관련된 딩벳을 이용하여 대한약품의 건물 외벽을 재치 있게 변화시킨

박미나

국내외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변화시킨 공단의 한뼘이 근로자들의 일상에는 작지만 즐거운 파문을 던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산업공단의 일터에 예술적 활기를 불어넣고 싶습니다.

흐르는

공단

2011

인사말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Greetings

공단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예술적 상상

여경환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강익중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

STX 에너지(주) 반월발전소 홍현숙 · 이주호 안녕하세요? 박미나 Healthcare

해성아이다 대한약품공업(주)

8 12

Artistic

KwonYeong-Bean president at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Flowering in the Industrial Complex

By Yeo Kyung-hwan Curator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18

Kang Ik-joong

Stirred by the

the earth

wind, joined by

36

Hong Hyun-sook Lee Ju-ho Hello?

Park MeeNa Healthcare

54

6

대화 : 인터텍스트로서 공공미술

같고도 다른 공공선 (公共善)

미술과 디자인의

정현 김승현 미술평론 디자인비평

72

82

90

작가약력

Conversation: Public Art as Inter-text

Chung Hyun Art Critic The Same and Different Public Goodness of Art and Design

Kim Seung-hyun Design Critic artist profile

### 인사말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미술관은 안산 반월 공단에 초대형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프로젝트〉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예술가를 만나게 하는 일이나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미술을 접하게 만드는 일이 조금은 생경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STX에너지 주식회사, 해성아이다,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이렇게 3개의 기업체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사실 발전소의 대형 축열조 표면, 공장 담, 건물 전면을 작가들의 캔버스로 내주시겠다는 결정을 내주시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참여하신 기업들은 문화의 시대에 동참하는 진정한 프론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지름 20미터의 축열조에 설치된 강익중 작가의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 해성아이다 70미터에 이르는 담에 설치된 홍현숙/이주호 작가의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의 가로 73미터 높이 20미터의 건물 전면을 활용하여 설치된 박미나 작가의 〈Healthcare(헬스케어〉〉 모두 초대형 작품들로 기존 회색 공장 건물로 즐비한 공단의이미지를 밝고, 젊고, 유쾌하게 바꾸어줄 예술의힘을 상징합니다.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에는 예술적 랜드 마크를 더함으로써 대내외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기업이 위치한 공단의 근로자들은 일상 속에서 보다 편안하게 미술작품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공단지역의 삶과 일터의 구석구석에 예술의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뼘프로젝트를 위해 기업체와 경기도미술관을 연결시켜주신 안산시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Greetings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MoMA) present the Ten-inch Projec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involving supersized public artworks set in the Banweol Industrial Complex, A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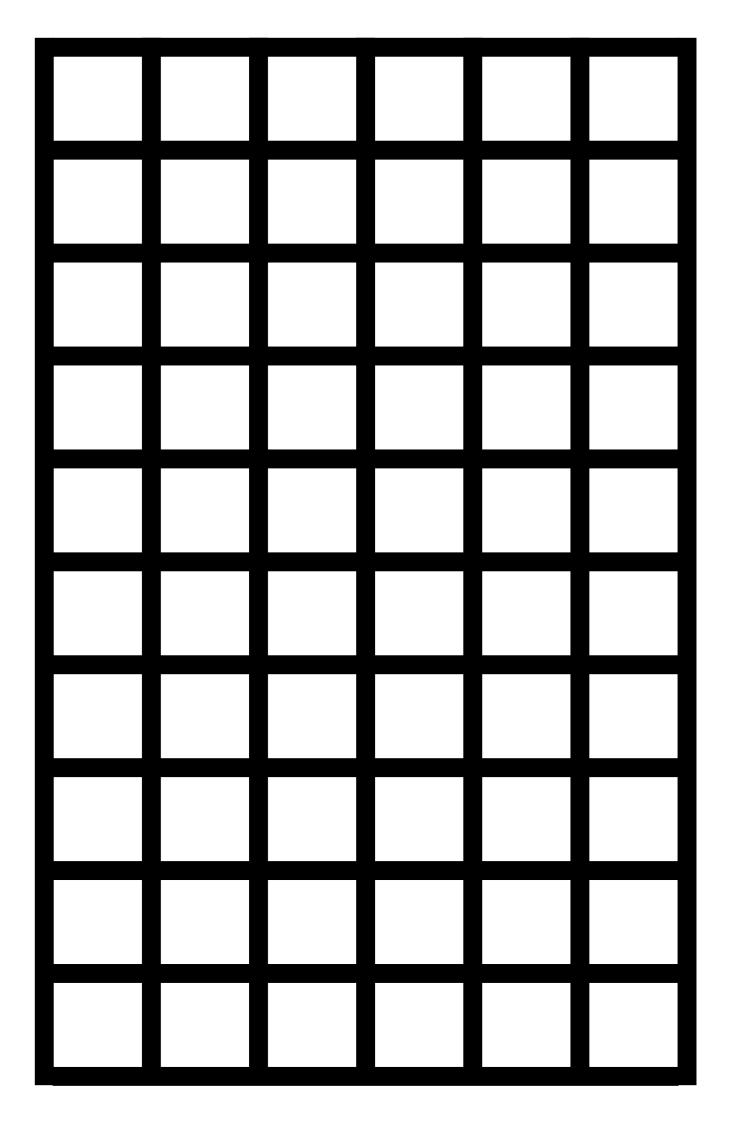
Although it is unusual for enterprisers to work with artists, enabling workers to enjoy art in their workplaces, three companies such as STX Energy, Haesung Aida, and Daihan Pham take part in the project. It is a challenge to offer the surface of a colossal heat storage tank in a power plant, a factory wall, or the whole surface of a building for a project, so each participating firm is at the frontier of culture. I'd like to thank these companies once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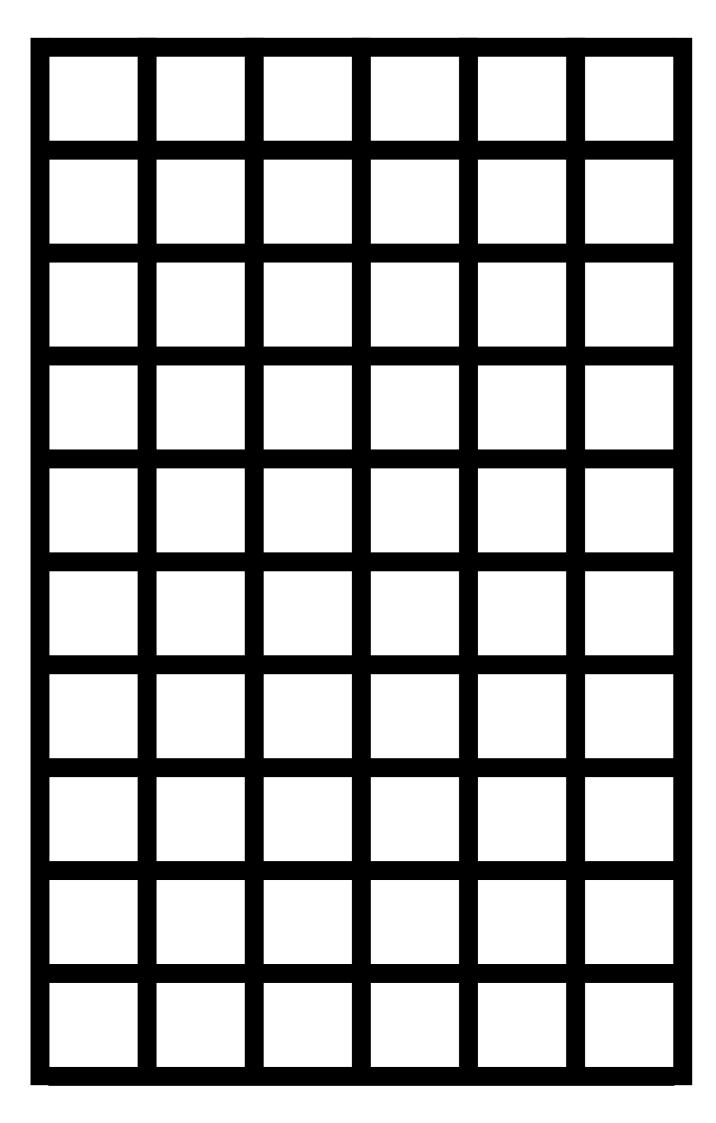
On the heat storage tank, 20 meters in diameter, is artist Kang Ik-joong's Stirred by the wind, joined by the earth on the wall of 70 meters at Haesung Aida is Hong Hyun-sook and Lee Ju-ho's Hello and on the front of a building 74 meters wide and 20 meters high at Daihan Pham is Park MeeNa's Healthcare. These supersized works represent the power of art making an industrial complex lined with gloomy, gray factory buildings bright, young, and cheerful.

Through the project companies enhance their internal and external images by lending artistic flavor to their company imagery, and workers in the industrial complex may meet artworks in their workplaces. With this,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the Gyeonggi MoMA expect the scent of art to spread to each corner of the workplace and sites for life in the industrial complex.

In closing, I am deeply grateful to the Ansan municipal government for linking the museum to firms for the project Thank you. Kwon Yeong-Bean

president at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예술이

흐르는

여경환

경기도미술관 하세여그사

공단

한뼘

프로젝트

를

공단의

이해하는

틈새에서

조각들

피어나는

예술적

상상

Fragments for understanding the Ten-inch Project,

By Yeo Kyung-hwa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Industrial Complex

Flowing with

Art

**Artistic Imagination** 

Flowering

in the

Industrial

Complex

들어가면서 쓸모에 대한 단상

여기 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다. 크리스토와 잔느 끌로드 부부가 1979년부터 시작해 26년간을 구상해 2005년에야 선보일 수 있었던 〈The Gates〉, 42km에 이르는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길에 높이 4.5미터짜리 1만 1000 개의 철문을 만들어 철문 위에 선황색 천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였다. 16일 후 작품은 철거됐다.

이들은 단 16일간의 전시를 위해 2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쏟아 부었다. 크리스토는 말했다. "나의 모든 작업은 〈예술은 소유할 수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고정 관념을 허무는 데 있다. 그 고정 관념에서 해방된 자유야말로 내 작업의 주제다"

16일과 2천만 달러, 어떤 경제논리로도 설명할수 없는 비효율적인 작업에 예술가들은 오늘도 매달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아트프로젝트는 다시 경제논리로 환원된다. (The Gates)는 4백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8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낳았다고 하다.

예술의 경제적 효과가 도처에서 분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참여 관람객 숫자가 질을 대변하고 이미지 개선의 효과는 빠르게 금액으로 환산된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진정한 쓸모는 어디에 있을까. Introductory remarks
A fragmentary thought on use

There is a public art project titled The Gates. Christo and Jeanne-Claude conceived the art project in 1979 and opened this to the public in 2005 after 26 years. A total of 11,000 gates, 4.5 meters in height and supporting saffron color fabric were placed on 42 km of paths in Central Park, New York. The work was removed after only 16 days. The cost of the project was 20 million US dollars. "All my work is to break down the fixed notion that art can be possessed and exists in perpetuity. Freedom from the fixed notion is the subject of my work." Christo said.

16 days and 20 million dollar ---- Artists today stick to inefficient work that cannot be accounted for in the logic of economy. Ironically however, most art projects are again reduced to economic logic. The Gates was viewed by more than 4 million people and generated economic effect worth over 80 million dollars. We live in an age when art's economic effect is often analyzed and measured. The number of viewers represents an event's quality, and itseffect is quickly calculated into a sum of money. Whatis the real value and use of a public art projects in the enormous capitalist system?

### 예술적 다양성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공단이라는 곳은 그 태생부터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지배하는 곳이다. 각종 공장들을 한곳에 집적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비용 절감을 기대하는데, 안산 반월 공단은 특히 1977년부터 국가 주도의 사업단지로 육성되었다. 사실 하번이라도 공단이라는 곳에 실제로 가본 사람은 안다. 한뼘'이라는 말이 표방하는 소박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월 공단 자체가 지닌 상상할 수 없는 메스(mass)는 도시의 스펙타클에 익숙한 우리의 눈에도 놀랍고 생경한 것이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껴지던 숭고(sublime)가 그곳에 있었다면 과장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끊임없이 늘어선 공장들과 여기저기 거대한 기계시설들이 노출된 표면, 그리고 노후된 공장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까지 뒤섞인 그곳에서, 오히려 공단이라는 장소 자체가 현대산업사회의 축소판이자 하나의 예술이 되는 그곳에서, 어떤 예술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프로젝트에서 작품이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프로젝트에서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 자체는 곧 공단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강익중의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가 설치된 곳은 반월공단의 전

## Artistic diversity beyond economies of scale

An industrial complex is from its birth a place governed by 'Economies of Scale'. Like a variety of industrial factories gathering in one place, infrastructures created can be efficient and expansion can be reduced. Since 1977, the Ansan Banweol Industrial Complex has been promoted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One who has visited an industrialcomplex even once may feel an industrial complex is not congruous to the simplicity the term 'teninch'advocates at all. The unimaginable mass of the Banweol Industrial Complex itself looked amazing and awkward to our eyes already familiar with urban spectacles. Is it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re was the sublime sensed in nature there? To speak frankly, this project was initially triggered by skepticism that we could organize an art project in the place of endless rows of industrial plants with surfaces exposing giant machines, and a nasty smell oozing out from time-worn factories. In the project a place where a work of art is installed unveils the industrial complex's identity. Kang Ik-joong's work Blended with the Wind, Linked to the Land is set in a heat storage tank 20 meters in diameter built by the STX Energy Banweol power station which supplies electricity to the whole area of the industrial complex. A heat storage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인 STX 에너지주식회사의 반월발전소에서 신축한 지름 20미터의 축열조다. 축열조는 화력발전소의 냉매로 사용되는 순도 99.9%의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다. 홍현숙 · 이주호의 〈안녕하세요?〉 가 설치된 곳은 구찌나 프라다 등 세계적인 명품회사에 피혁원단을 수출하는 해성아이다의 70미터에 이르는 담장이다. 사실 담장이라는 것은 안산 공단에서는 꽤나 파격적인 것이다. 전체 80%이상이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으로 구성된 반월공단의 여건상 공장시설을 짓기에도 급급했기에 번듯한 담장을 가진 회사는 손에 꼽히는 공단의 현실이 있었다. 피혁공장들이 3D업종으로 분류되며 중국이전이나 폐업을 할 때 오히려 기술력과 품질이라는 정공법으로 뚫고 나갔던 해성아이다의 자존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박미나의 〈Healthcare〉 는 아예 가로 73미터 높이 20미터에 이르는 공장 건물을 전면 외관을 캔버스로 삼았다.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라는 1945년 국내 최초로 수액제를 소개한 제약회사의 전통과 자부심을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당벳 폰트를 통해 현대화 시키는 작업이었다.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이라는 미술용어가 완벽하게 조건 지워질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이었다. 그것은 23미터, 70미터, 73미터의 초대형 작품들조차 공단이라는 물리적 스케일 앞에서는 그저 한뼘 정도의 크기와

tank holds water of 99.9% purity used to cool a thermoelectric power plant. Hong Hyun-sook and Lee Ju-ho's Hellois set on the 70 meter long wall of Haesung Aida, a artificialleather manufacturer exporting leather to world-renowned designergoods manufacturers such as Gucci and Prada. In fact, such a wall is rarely found in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complex more than 80% of the plants are small businesses composed of less than 50 workers. Only a few plants have walls. Although most leather firms considered moving their factories to China or terminating their business because the leather industry was classified as a 3-D job (work that is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Haesung Aida overcameits difficulties with its technical capability and quality. The wall signifies this leather company's pride and identity. Park Mee-na uses the front wall of a factory building, 73 meters high and 20 meters long, as her canvas for Healthcare. This work is a representation of the tradition and pride of Dai Han Pham. Co., Ltd. which first produced infusion solution in 1945 in Korea and used diverse dingbat fonts related to health. This project has completely conditioned her use of the artistic term 'site-specific'. The work is an allegory of the reality in which even super-large works 23, 70, or 73 meters high may be considered small when compared to the physical scale of an industrial complex. Let's go back to the starting point.

파장을 가지는 현실에 대한 우화이기도 했다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보자. 규모의 경제란 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때 생산비용이 두 배보다 덜 증가하는 경우를 일컫는 경제용어다. 규모가 담보되면 산출량은 두 배, 세 배로 증가해도 생산비용은 낮아진다는 논리다. 공단은 규모의 경제 법칙에 완벽히 조응하는 듯 보였지만 공단조성 후 30년이 넘어서자 치안, 환경, 공단 이미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예술이 투입된다. 물론 예술이 사회적 손실을 메우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예술이 단순히 공단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환경미화는 아니다. 예술의 역할은 그저 공단의 삶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균열의 틈새들을 드러내고 메꾸며 이어주는 일이다. 크리스토 부부가 그랬듯이, 단 16일간의 자유를 위한 예술적 모험들이 가능할 때 나아가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아닐까, 확실한 건. 아직도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이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되기를 꿈꾼다는 것이다. 자신의 작품이 단지 돈 많은 개인의 소유물로서 집안을 꾸미는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보여 지고 즐길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미술에 있어 공적인 미술일 것이다. 그러한 소망들이

'Economies of Scale'is a term in microeconomics referring to the case that when outputs increase two times, the cost increases less than two times: it depends on the logic that production cost can be lowered if the scale becomes larger. The Banweol Industrial Complex initially seemed to completely correspond to the economies of scale. but 30 years after the creation of the complex diverse elements such as public order, the environment, and image, demandedsocial costs. Such problems are beyond the economies of scale. Art is involved at this point. Of course, art cannot make up for the loss, and present any practical alternative. Art just plays the role of exposing and filling cracks in life at the complex rather than merely beautifying the place.

As Christo and Jeanne-Claude did, when an artisticadventure is possible, our society can attain diversity. What's obvious is many artists still dream their art can be communicated to a large number of people. One's work can be viewed and enjoyed in society rather than being a well-to-do individual's possession for decorating his home, which is in a broad sense the meaning of public art. When this wish is actively reflected, one's work expands to public artwork displayed in the city and various artistic imaginations are embodied in the space of our lives.

14

적극적으로 진화될 때 거리에서, 도시에서 선보이는 공공미술 작업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적 상상들이 구현되는 것이다. 나오면서 작은 목소리들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박미나 작가의 〈헬스케어〉가 설치되는 모습을함께 지켜보면서 참여기업의 일선 담당 부장이나에게 던진 말이다. 여기서 "저 같은 사람"이란,미술에 대해 문외한을 의미했다. 사실 난 꽤나충격 받았다. 경전철이 들어오는 공단 3거리중심에 위치한 이유 때문에 생면부지의 기업을방문해 설득하기를 수차례, 작품을 설치하자고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유독이나 소극적이던분이었다. 그분은 늘 '저 같은 사람은 미술은 잘모르구요'부터 시작했지만 대신 기업 경영진에우리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주셨다. 작품이설치되는 과정을함께 지켜보면서 늘 전달자였던분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놀랍고, 또 기뻤다. 또

다른 참여기업의 경비원은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작가의 작품안을 프린트라도 해서 갖고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좋다고 느낄 정도면 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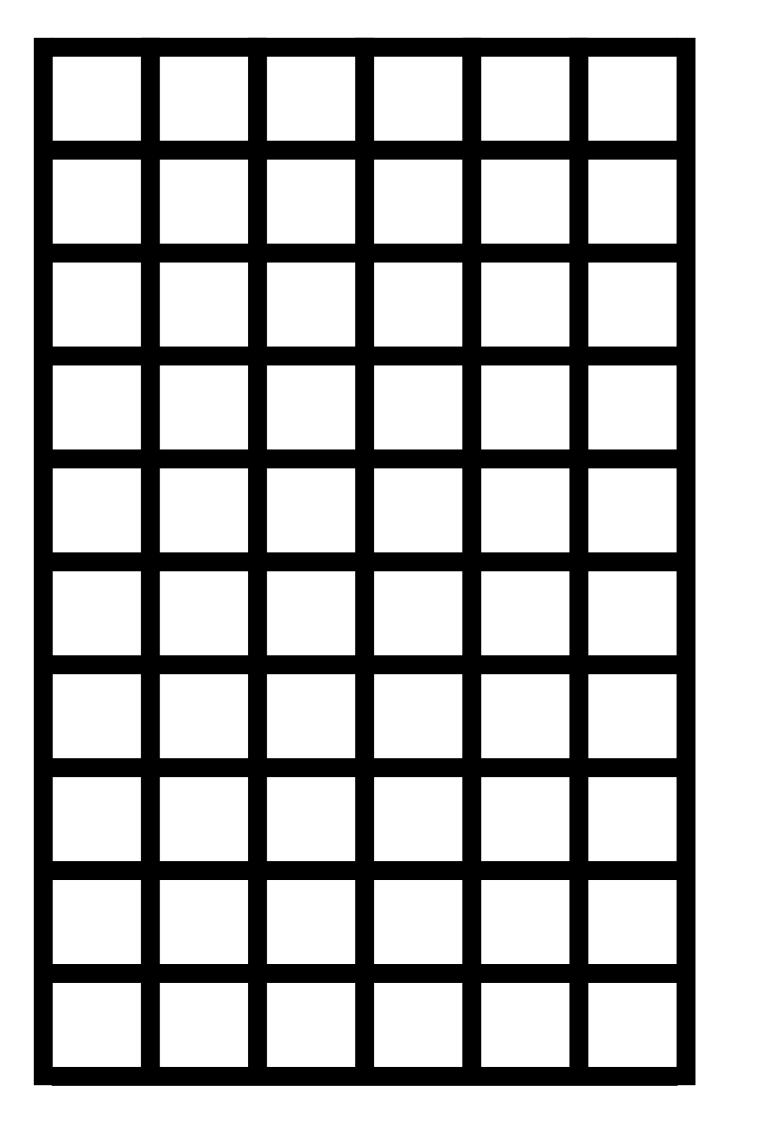
어쩌면 늘 자동으로 따라붙는 상투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삶 속에서 확장되는 미술, 일상에 파문을 던질 수 있는 미술, 그런 건 교과서 속에만 박제되어버린 의미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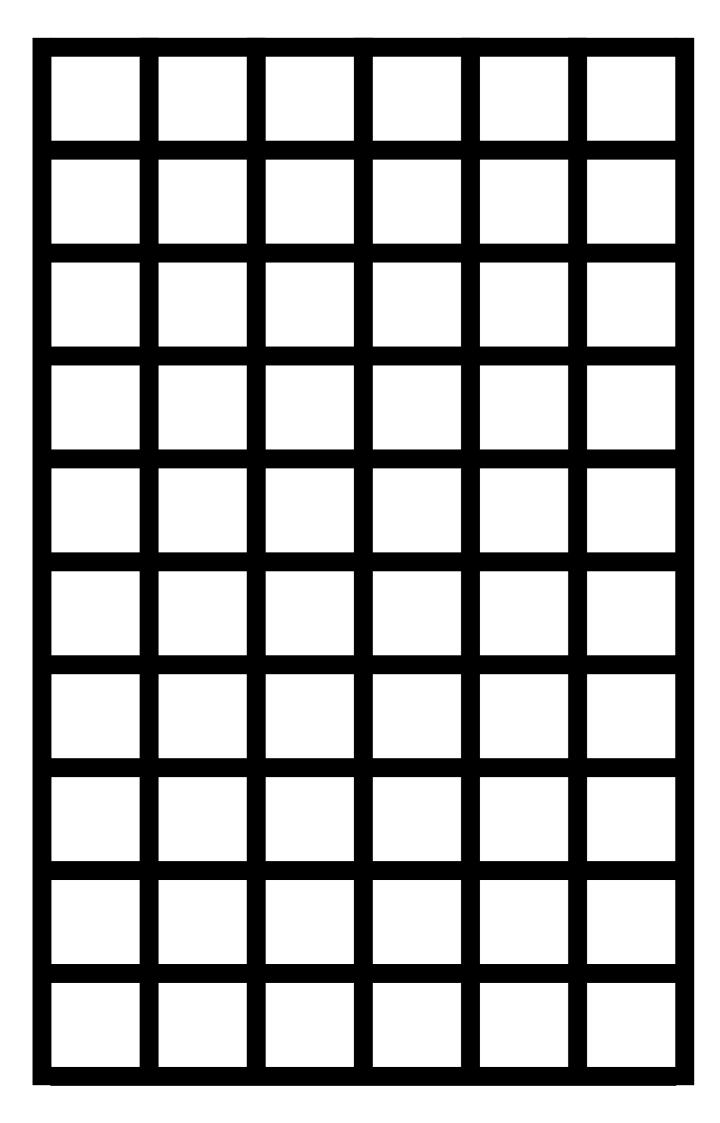
### Concluding remarks Little voices

싶다고 말했다.

"If a person like me feels nice, is it really nice?" A manager of a participating firm told me this when watching Park's Healthcare was being installed. "A person like me' here means a layman to art. Actually, I was quite shocked because he remained particularly passive in the processof persuading the management of his firm to install the work. I visited a firm I have never known several times to persuade them to allow an installation because the firm is located at the center of a three-way intersection. The man always started with the words "I don't know art well", but faithfully conveyed our posi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 was so surprised and delighted at the fact that the person who was always a messenger expressed his feeling as the subject, watching the process of setting the artwork together. A janitor at another firm said he liked the work very much, and so he wanted to have a print of the work. The following words may sound like a cliché. I had thought of art expanding in life and art creating a stir in daily life as something remaining stuffed in a textbook. While curating this project however, I could meet this long belief again. Like a bluebird we haven't recognized, even though it is before our eyes, perhapsflying around us.

기획하면서 그러한 오래된 믿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파랑새처럼 우리의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강

익 중 바람으로

섞이고

Kang, lk-joong 땅으로

STX

이어지고

에너지

주)

반월

wind, joined by the earth

Stirred by the

발전소

"화력발전소의 물은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연결해주는 매체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어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연결과 균형의 문자입니다. 한글과 물이 닮았습니다"

강익중

강익중은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에 정착하여 백남준 이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빛내는 미술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에게 현대 미술가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연결자(connector)이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바늘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물'은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연결합니다. 우리가 물에 대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열 가지 속담의 한글 배합을 통해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루어내는 한글의 아름다운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불꽃이 일렁이는 화력발전소와 축열조를 채운 넓고 깊은 물이 이루어내는 세계에 대한 상상이며, 그 과정을 통해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밝혀주는 우리의 삶과 예술에 대한 상상입니다.

"Water used at a thermal power station is a medium transferring and connecting energy. Hangeul, the Korean alphabet, is a system of connection and equilibrium in which letters are formed through the connec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In this sense Hangeul bears a similarity with water."

Kang Ik-joong

Living and working in New York after graduating from the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Painting, Kang Ik-joong is credited as a Korean artist who has brought honor to the nation on the international art stage after Nam June Paik. He considers a contemporary artist a connector between the past and future, and a needle awakening a sleeping soul.

'Water' at a steam power station transfers and connects energy. Kang shows Hangeul's exquisite combina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through a harmonious mixture of Korean letters for the 10 most familiar proverbs associated with water. These are the imagination of the world achieved with a thermal power plant where the flame meets water filling a heat storage tank, and the imagination of our lives and the arts brightens. In this way, art meets energy. We are linked to one another, blended with the wind and connected through the land.

18

강익중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 26.32×22m 한글 작품은 내 어린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교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시절 보았던 글자카드 같은 것입니다. 집에 놀러온 외국 지인들은 아이의 한글카드를 보고 예쁘다며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작가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공공미술을 위한 목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 작품은 '한글'이라는 소재 자체가 공공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글 작품은 다른 작품보다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나의 조국' '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나의 살던 고향'의 것입니다. 한글작품을 하면서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문자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을 붙잡고 한글을 가르쳐
주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익히는데 24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은 한두 시간이면 한글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글의 뜻을 인식한 것은 아니고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한글은

아이폰 보다도 더 직관적입니다.

배우기

쉬운

Artist statement

My Hangul (Korean alphabet) work began as a tool for teaching my children Hangul, like letter-cards. Foreign acquaintances who visited my home recognized the beauty of Hangul, asking many questions. Most of my works were not intended as public art, but the subject matter, Hangul itself is public. Therefore, I do not think my Hangul works are mine. They are my motherlands', my grandfather's, and my home's. While executing Hangul works, I became more interested in Hangul. There were many interesting happenings.

# Easy to learn letters

I execute the project of teaching Hangul to foreigners in Itaewon, and it is said foreigners can learn Hangul characters in only 24 hours. Through the project I discovered they can read a Korean book in one or two hours. Although this means they can pronounce, there is no understanding of the meanings of words and sentences, but Hangul is more intuitive than i-phone.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뉴욕에서 생활하다 보면 세계 각국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낯선 국가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읽으려면 곤혹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어의 알파벳도 표음문자이지만 한글만큼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친구들에게 한글로 이름을 적어주곤 했는데, 한글은 세계 각국 친구들의 이름을 보다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을 조합하여 문자를 만듭니다. 일본어 300여개, 중국어 400여개, 한국어는 11000개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결되고 이어지고 한글은 국가와 대륙을 뛰어넘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의 발음을 가장 잘 표기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지구별 문자입니다.

IT 강국을 만든 문자

학창시절 컴퓨터는 단지 공학자들만이 사용하는 도구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타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두 손가락만을 사용한 독수리 타자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모여 자국의 언어로 워드를 할 때면 제 타자 실력은 으뜸이 됩니다. 젊은 중국, 일본 친구들과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도 1등입니다. 미래를 내다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덕분에 IT와 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제 가동되고 있는 공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제의를 받고 설레었습니다. 일터에서의 미술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전시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했습니다. 작품안을 한글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어 하나의 글자를

만듭니다. 화합과 균형의 문자라고 합니다. 공공미술은 작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산 공단의 관계자분들, 작품 설치를 함께할 분들, 그리고 미술관 큐레이터분들 모두가 인연이 되고 하나가되는 전시가 좋은 전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혹독한 추위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듯한 차를 서로 나누고, 현장의 어려움을 서로고민하며, 작품의 완성을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보고, 한글과 공공미술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 제목처럼 바람으로섞이고 땅으로 이어진 이 세상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 Letters used for diverse pronunciations

In New York I met many people, and often have difficulty in pronouncing their names. Although English is a phonographic, it has fewer written pronunciations than Hangul. I used to write my foreign friends' names in Hangul accurately. Hangul words are formed with 14 consonants and 10 vowels. Japanese allows for writingabout 300 pronunciations, Chinese about 400, and Korean about 11,000. Hangul is the language that can best write pronunciations. In other words Hangul has global letters all nations can sh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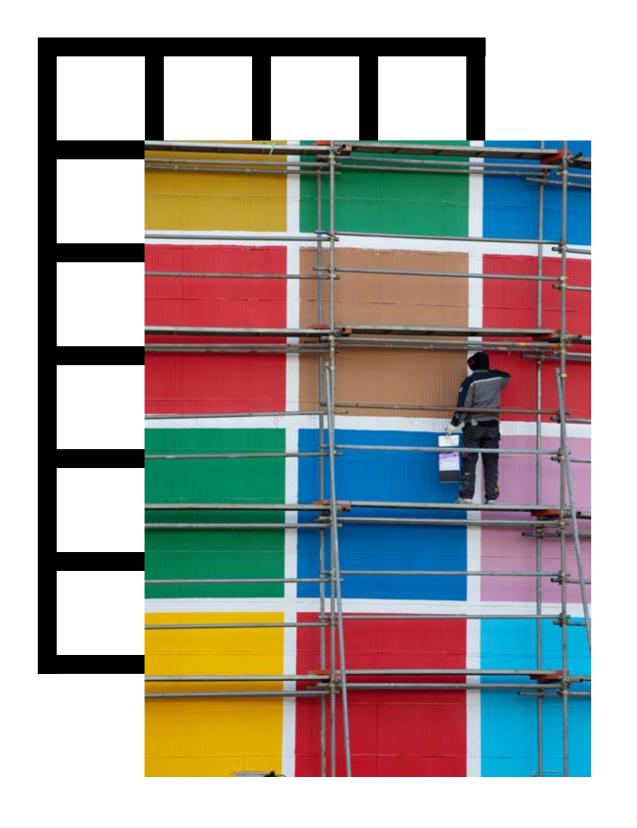
Letters that enables Korea to become an IT power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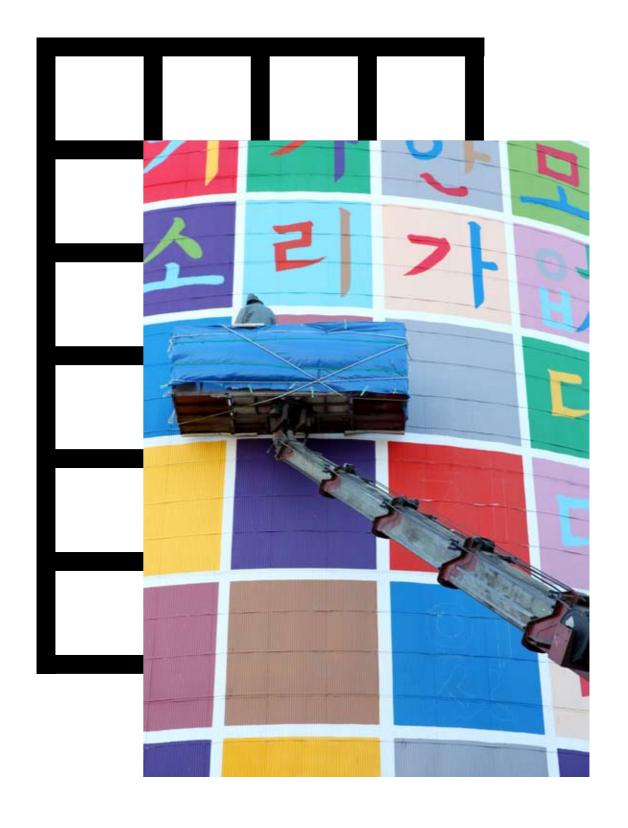
At school the computer was used only by engineers. I could not even learn typing. I still only use two fingers. But, my typing ability is best when competing with foreign friends in their own languages. Sending messages with a mobile phone, I am top, defeating Japanese and Chinese friends. I can befriend IT devices thanks to the wisdom of my ancestors.

I felt excited by the project for an industrial complex suggested to me. I thought art at work sites can make us happier. Wishing for the exhibition to be happy, I prepared Hangul works. A Hangul letter is formed by a combination of consonant and vowel. It is said Hangul is a languageof harmony and balance. I think public artworks are not made only by an artist's effort. I consider a good exhibition is one involving persons of the Ansan Industrial Complex, museum curators, and artists, and their works. The exhibition was in progress in cold weather. I thought Hangul is quite similar to public art when witnessing people sharing hot tea, concerned with difficulties, being pleased with the completion of work. As the work title indicates, I am happy and thank the world "Stirred by the wind, joined by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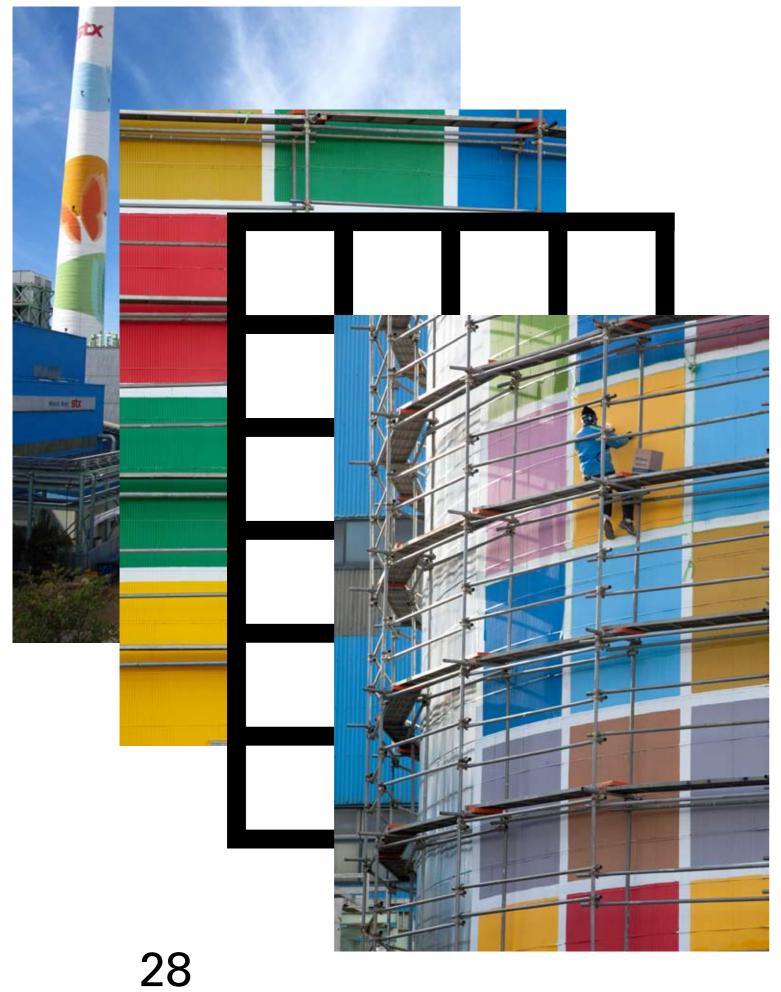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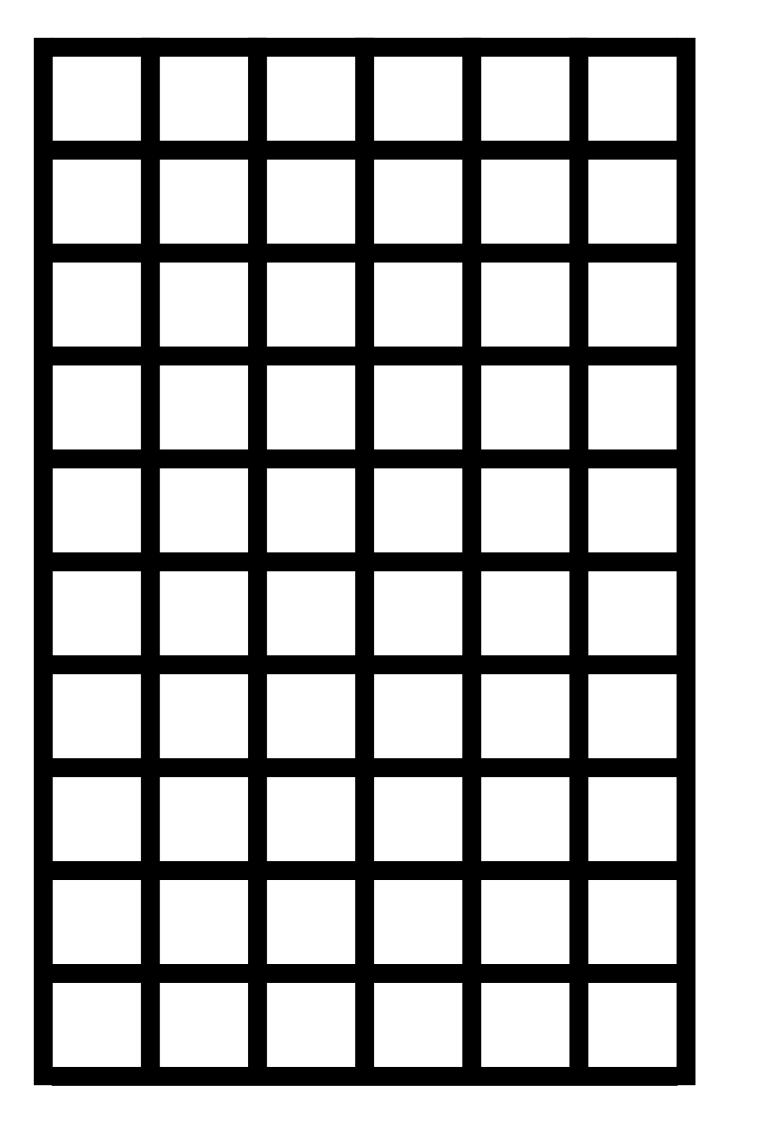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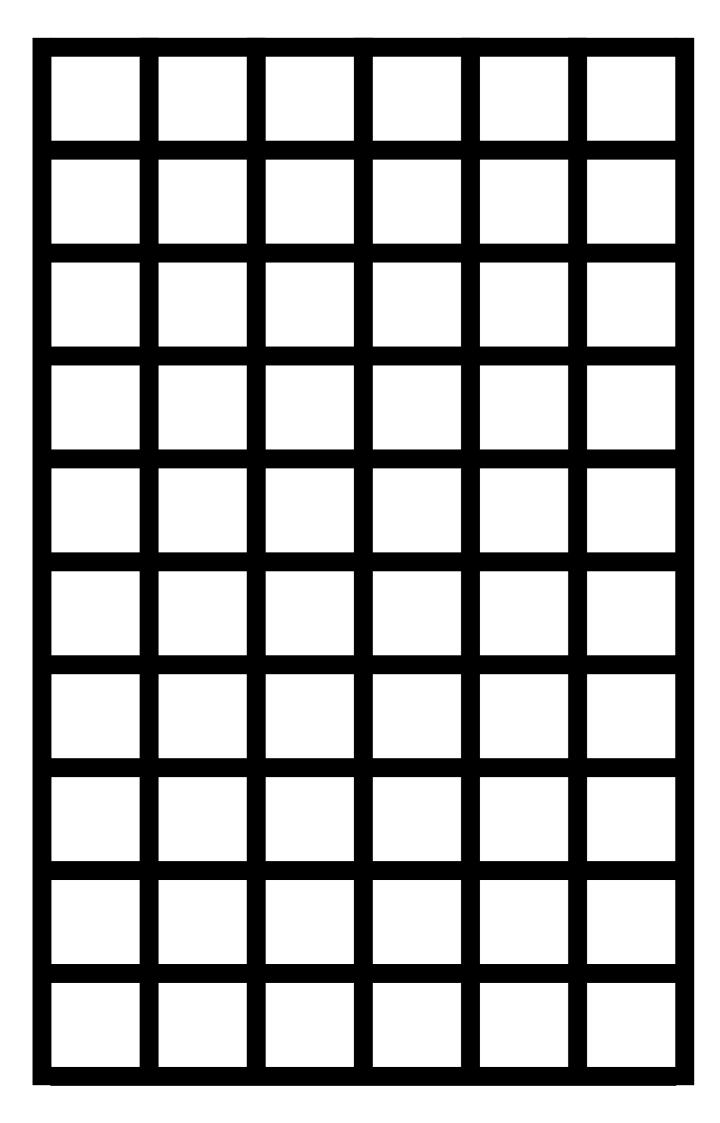












홍현숙

홍현숙 이주호 환한 공단 70.5×7m

이주호

안녕

Hello?

Hyun-Sook, Hong

하세요?

해성

아이다

Lee, JooHo

안녕하세요?!

흥현숙과 이주호는 안산 반월공단의 근로자들, 근로자의 가족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밝고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일반인들의 그림들을 수집하여 그것을 예술가들의 눈으로 추려내어 알루미늄 철판에 새긴 후 컬러 코팅하여 완성한 대형 벽화설치 작업이다.

혼자만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천재성으로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는 예술가의 시대는 지나갔을 지도 모릅니다. 예술가들의 지위와 역할은 미술이 도달하고 싶은 그곳을 같이 상상해보자고 말합니다. 지금 서있는 곳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를 깨닫게 하고, 남을 또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광기 혹은 폭력을 흡수할 스펀지 같은 예술이 이곳에서 가능한지 함께 찾아보자고 말건네는 사람, 그 이웃이 바로 예술가입니다.

Hello!

Hong Hyun-sook and Lee Ju-ho give warm greetings to laborers, their families, and migrant workers working in the Banweol Industrial Complex in Ansan. This is a large-scale wall installation composed of the general public's paintings chosen by the artist's eye and carved on aluminum plates and completed with a color coating. The time for prodigy artists, who are immersed in their work, immuring themselves in their studio may be ended.

The artist's role is to suggest what we imagine what art wants to achieve. The artist is one who encourages us to explore the arts that can absorb madness and violence, making us realize that outside our world of existence is our neighbor artist.

처음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안산공단의 공장들을 다니면서, 나는 5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온 노동자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리는 공단 노동자들의 그림과 글을 받아 그것들로 해성아이다 공장에 벽화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당연히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들을 만나게 될 줄 알았다.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를 만날 시간이 없거나 정작 시간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할 공간이 없는 것이었다. 그동안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와 용신 평생학습원, 경기도 미술관, 해성아이다 공장 식당에서 그들을 만났지만 사귀지 못했고 사귀기에는 접촉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우리는 그림을 그려 달라기에 바빴고 그들은 갸우뚱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었다.

무지무지 무서운 사장님을 그리고, 맞은편에는 자기가 무릎 꿇고 앉아 사장님의 자비("Be patient!")를 구하는 모습을 그렸는가하면 호치민의 시와 오래된 가요를 썼고 티모르의 지도를 세세하게 그렸다. 애틋한 연인과의 키스를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고향과 자식의 얼굴을 그렸다. 자신의 공장을 그리면서 꼼꼼하게 그 일하는 현장을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안산시장에 있는 어떤 채소가게를 그린 친구는 동티모르 친구였는데 가게 세부를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게 기억해내서 잘 그리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고마웠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날 줄 몰랐기 때문에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같이 보였고 사실 거절당할 것 같아 두려웠다. 당신의 그림이 어디에 붙을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Artist statement

While making site trips at the Ansan Industrial Complex for this project, I was buoyant with the expectation of meeting migrant workers from over 50 countries. We planned murals for the Haesung Aida plant using pictures and texts the workers created. We expected to meet them while executing this project. But unfortunately they had no time, and no space to meet even if they had time. We met just a few times at the Ansan Migrant Community Service Center, Yongsin Life long Community Cente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Haesung Aida factory cafeteria, but contact time was so short. We were busy asking them to draw pictures, and they drew hard for a brief time, wondering whv.

A worker depicted A dreadful boss, and himself pleading for the boss' mercy, kneeling. Another wrote down Ho Chi Minh's poems and songs, while others drew a detailed map of Timor. Some depicted a kiss between lovers, others drew their home or the face of their children they missed, and one drew his factory in detail. A worker from East Timor drew a greengrocer's shop in the Ansan market so delicately we were all astonished.

As we were unsure when we could meet again, we could not ask for their contact numbers, for fear of being rejected.

Although we explained the pictures would be displayed, they seemed not to listen carefully.

난 모르겠다. 이 프로젝트를 통한 '미술적 체험'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이차가운 회색 벽에 틈을 내고 그 속으로 뜨거운숨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가진화해야한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일까?고지가 저기라고 어떤 깃발을 들 수 있을까?

물론 안산공단에는 노동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뀐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아마 어쩌면 거기서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미술이 도달하고 싶은 그곳을 같이 상상해보는 것! 지금서있는 곳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를 깨닫게 하고, 남을 또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광기 혹은 폭력을 흡수할 스폰지 같은 예술이 이곳에서 가능한지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면 이 작업이그 구체화의 작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홍현숙 2011.12.28

I don't know how to have artistic experience through this project. How can we bring a hot breath to this cold gray wall? In which direction can this project evol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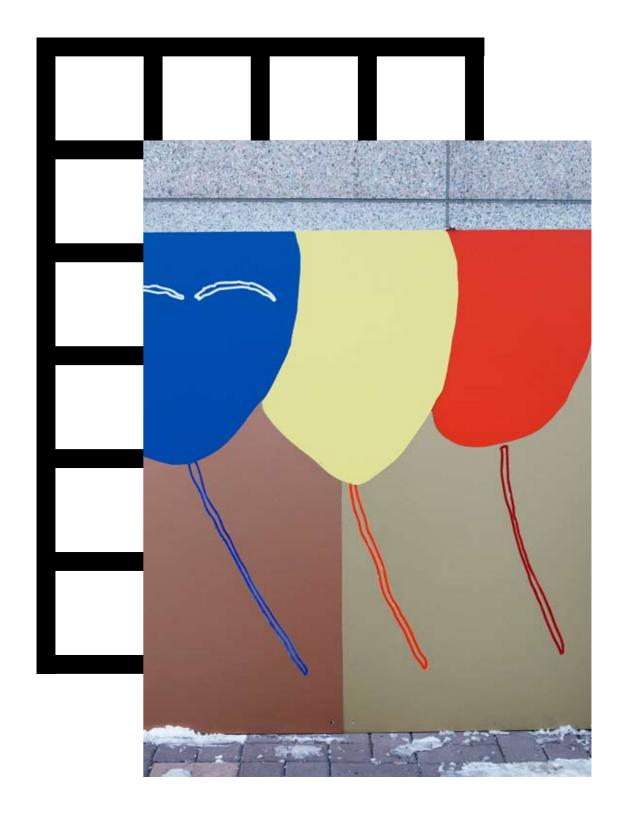
Of course, there are many employers in Ansan Industrial Complex. Can change occur if they change? We can probably start there.... If what's important is to imagine together a place for art to arrive, and look at arts like a sponge to absorb madness and violence, this work may be a step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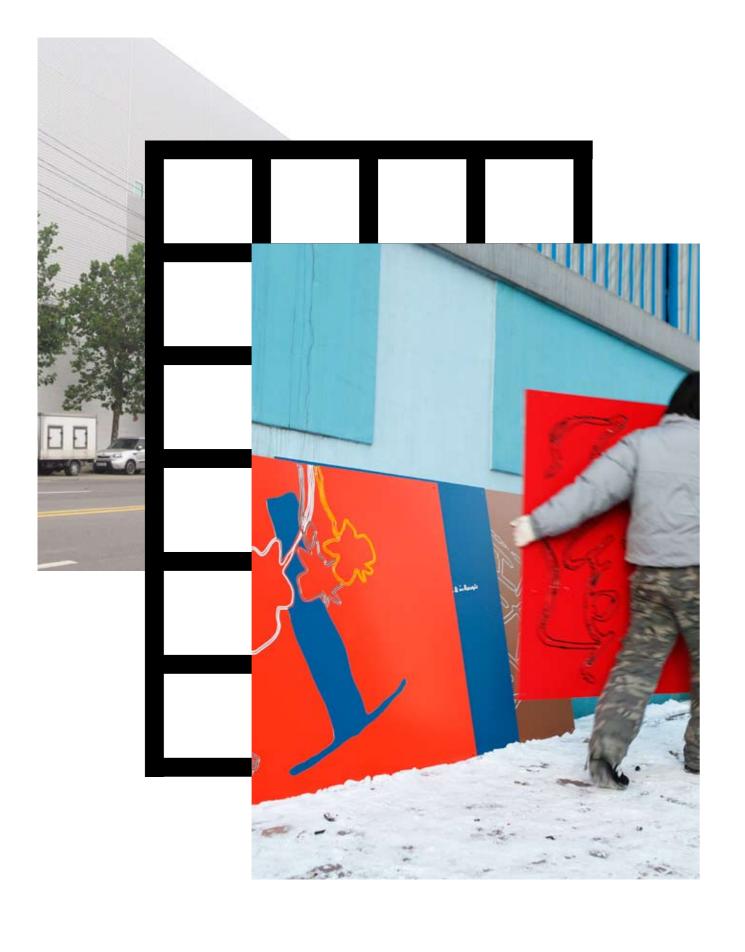
Hong Hyun-sook 28th. Decemb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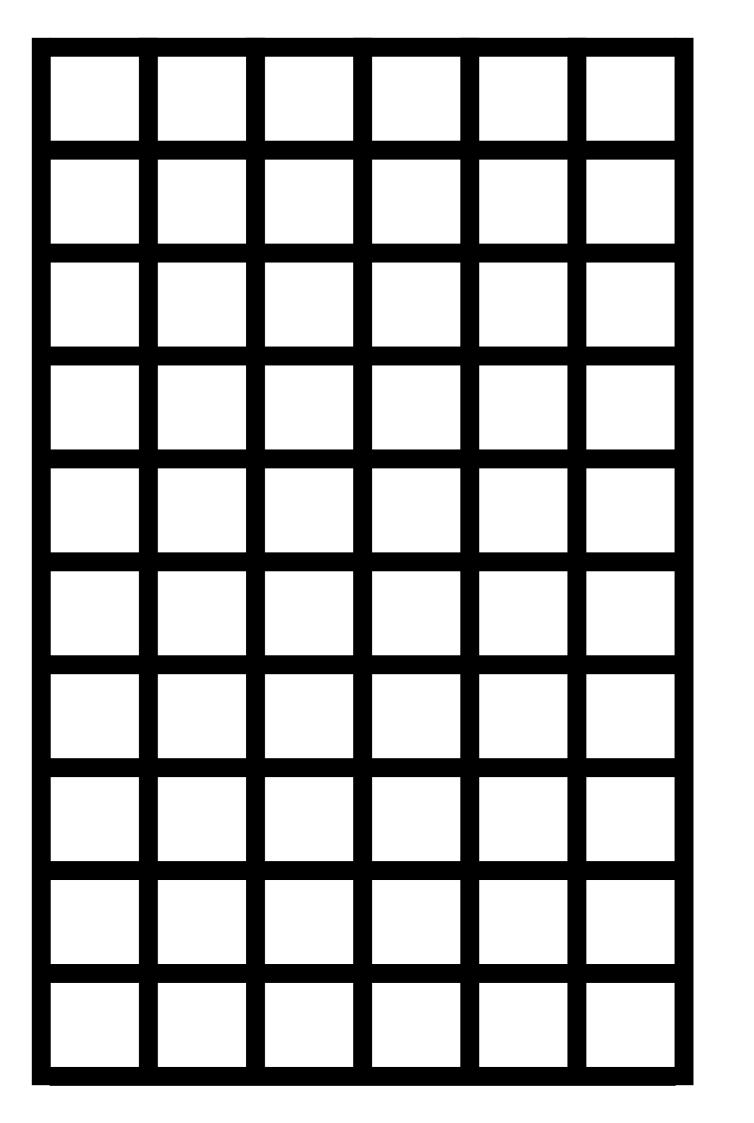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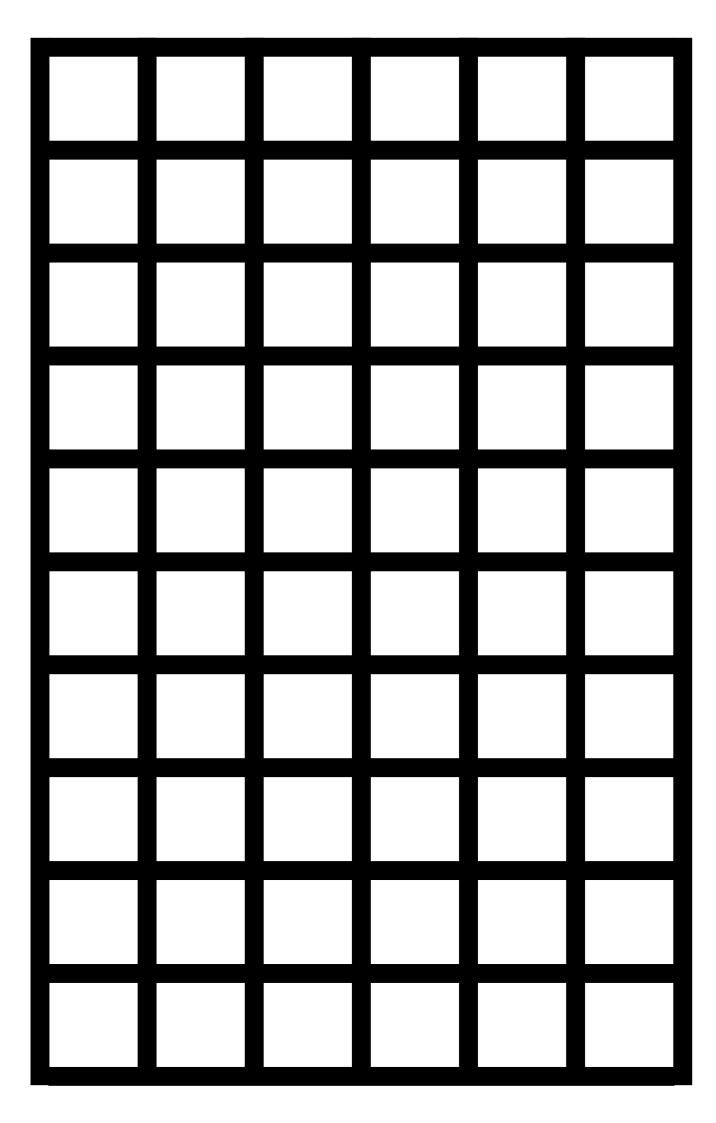












미나 Health

MeeNa Park

care

대한

약품

공업

주)

작품의 제목처럼 헬스케어(healthcare),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보화된 이미지들을 암호처럼 배치함으로써 질문을 던지고,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과정을 작품을 보는 여러분께 던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박미나 작가가 제시하는 게임입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미술대학과 뉴욕시립대학원 헌터칼리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미나는 색상, 숫자와 문자, 기본 도형과 문화적인 부호와 기호들을 현대적 회화의 방식으로 수집, 분류, 배치하는 "과학적 예술" 작업으로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박미나의 트레이드 마크인 딩벳폰트(dingbat · 글자를 그림으로 치환한 컴퓨터 이미지)
작업을 공공미술로 선보인 이번 프로젝트는 의학, 제약과 관련된 내용의 딩벳폰트들이
대한약품의 청정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딩벳폰트(식물, 물, 동그라미)들과 함께 배치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스텔톤의 색감을 유지함으로써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강조하여 건물과
어우러진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작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What do we need for health care or a healthy life? Posing a question by arranging informative images like codes and showing viewers the process of decoding the codes. The process itself is the game artist Park Meena presents. Park MeeNa majored in Western-style painting at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and Hunter College,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ark is a artist who draws attention with 'scientific art' in which colors, numbers, letters, basic figures, cultural signsand symbols are collected, assorted, and arranged in a modern pictorial manner.

Park presents dingbat (computer images replacing letters with pictures) fonts, her trademark work as public artwork in this project. Dingbat fonts related to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are arranged with dingbat fonts (plant, water, and circle) symbolic of the clean image of Dai Han Pham. Co., Ltd. The project is completed as a site-specific work, underscoring a warm, modern feeling with pastel tones applied to the whole.

모든 예술가들은 비슷하다. 그들은 예술보다 사회적이며 공동적이며 사실적인 무엇인가를

Dan Graham lacy, Suzanne,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공공미술의 문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보죠. 몇 주전 우리가 대화할 때 공공미술의 개념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술가는 원재료(the source material)를 제공하나 관람객은 자신의 관점, 취향, 교육, 그리고 경험을 통해 이 재료의 의미나 적절성 (relevance)을 파악한다.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면 예술가는 '대중'(the people)들의 예측할 수 없는 의지와 변덕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한다 Cher Krause Knight, Public Art: Theory, Practice, and Populism

공공미술은 영속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진부한 주제를 메시지로 다루지도 않는다. 공공미술은 공통의 토대를 갖지 않는다. 공공미술의 질감이나 맥락이 수 년간에 걸쳐 변해왔으며이는 새로운 설명(new clarification)을 제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공공미술은

반응적이거나 시의적절하며 특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유연성과 적응성에 기반해야 한다.

Philips Patricia C Temporality and Public Art, Classical Issues in Public Art: Content, Context, and Controversy

글쎄요, 공공미술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적은 없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전까진 그다지 문제점을 박겨하진 못했습니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제 '문제'는 범주화 (categorization)나 이름짓기(naming)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예술이 형성되고, 공중(a public)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죠. 때론 건축물을 고기 한 조각이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공공미술은 이 건축물 옆에 놓인 장식(a piece of garnish)의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미술은 일종의 장식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공공미술이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제 동료들이 지금 이름 바꾸기 위해 작업하고 있죠 그러나 공공미술은 자주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Mitchell, W.J.T. An Interview with Barbara Kruger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통미술에서 관람객의 본질은 실제적이거나 이론적인 면에서 엄격히 연구되고 있다. '대중'(public)이란 단어는 장소, 소유권, 혹은 접근 등에 한정된 묘사인가? 이는 주체나 특정 관람객의 특성에 관한 것인가? 이는 예술가의 의도나 관람객의 관심에 대해 설명하는가? 이 용어는 예술이론을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시킨다. 대중과 예술이라는 용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예술가와 관람객 사이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 자체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Lacy, Suzanne,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ic Art

미숙과 디자인이 전치의 시대(this era of displacement)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는 정체성이나 공동체와 같은 모든 개념을 검토해 현대세계에서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현과 소통의 대안적인 수단을 창조하는 것이다. 나는 예술가들이 이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이상향(utopia)은 이상향은 단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놀랍게도 이상적인 프로젝트와 흡사하거나 우리가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Wodicko Krzysztof Interview Dialogues in Public Art

우리가 대중(public)에 대해 갖는 인상(idea) 은 문화적인 것이며 일종의 실제적인 허구 (practical fiction)처럼 다른 사회나 초기사회의 유사한 존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대세계에 현존한다. 권리, 국가, 시장에 관한 생각처럼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이를 규정하는 조건은 계속 변해왔으며 정확한 의미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현재 후기식민주의 세계에서 대중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 개념이 갖는 모순 속에서도 모호함이 발견된다. 이 의미는 새로운 맥락과 새로운 매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수사(new rhetorics)로 확장되어 왔으며 의미는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틈도 없이 숨가쁘게 변해왔다

Warner Michael. Publics and Counterpublics

창조적 행위는 관람객이 일종의 변형 (transmutation), 무의미한 물질(inert matter) 의 예술작품으로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람객의 역할은 미적인 측면에서 작품의 중요성(the weight of the work)을 결정하는 것이다. 창조적 행위는 대체적으로 예술가 혼자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관람객은 작품의 질을 해석함으로써 작품이 외부세계와 접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창조적 행위에 일조한다. 이는 후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때로 잊혀진 예술가들을 되살릴 때 보다 명백해 진다.

Duchamp, Marcel The Creative Act. Theories and Documents of Contemporary Art: A Sourcebook of Artists' Writings

All artists are alike. They dream of doing something that's more social, more collaborative, and more real than art.

Dan Graham Lacy, Suzanne.(1995).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Seattle: Bay Press.

Could we begin by discussing the problem of public art? When we spoke a few weeks ago, you expressed some uneasiness with the notion of public art, and I wonder if you could expand on that

viewpoint, taste, education, and

whims of "the people."

Public Art: Theory, Practice and Populism.

Knight, Cher Krause (2008).

Blackwell Publishing.

n Interview with Barbara Kruge Inquiry, Vol. 17, No. 2, (Winter): 434-448.

The artist provides the source material, but it is the viewer - with her own experience - who discerns its meaning and relevance. Once art is shard with a larger public, the artist surrenders control to the unpredictable will and

> Lacy, Suzanne. (1995).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Public art does not have to last forever: it does not have to cast its message to some unmistakable butplatitudinous theme that absolutely everyone will get; it does not have to mark or make a common ground. As the texture and context of public life change over the years, public art mush reach for new articulations and new expectation. It must rely on its flexibility, its adaptability to be both responsive and timely, to be both specific and temporary.

Phillips, Patricia C. (1992). Temporality and Public Art. Critical Issues in Public Art: Content, Context, and Controversy. Harriet F. Senie and Sally Webster (eds) 1998 rev. edn.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ell, you yourself lodged it as the "problem" of public art and I don't really find it problematic inasmuch as I really don't give it very much thought. I think on a broader level I could say that my "problem" is with categorization and naming: how does one constitute art and how does one constitute a public? Sometimes I think that if architecture is a slab of meat. Then so-called public art is a piece of garnish laying next to it. It has a kind of decorative function. Now I'm not saving that it always has to be that way-at all-and I think perhaps that many of my colleagues are working to change that now. But all too often, it seems the case.

Mitchell, W.J.T. (1991).

The nature of audience-in traditional art taken to be just about everyone-is now being rigorously investigated in practice and theory. Is "public" a qualifying description of place, ownership, or access? Is it a subject, or a characteristic of the particular audience? Does it explain the intentions of the artist or the interests of the audience? The inclusion of the public connects theories of art to the broader population: what exists in the space between the words public and art is an unknown relationship between artist and audience, a relationship that my itself become the artwork.

Seattle: Bay Press.

What can art and design do in this era of displacement? It can examine all of those notions of identity and community, questioning the media presentat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and creating alternative means of representation and communication. I do notmean that the world will change for the better because artists do those things, but my utopia is based on the belief or hope that if we did not do those things the situation would be worse. It is not that I am providing a new horizon, but clearly just to come to terms with the present situation is an incredibly utopian project - just to figure out where we are now and where we should not be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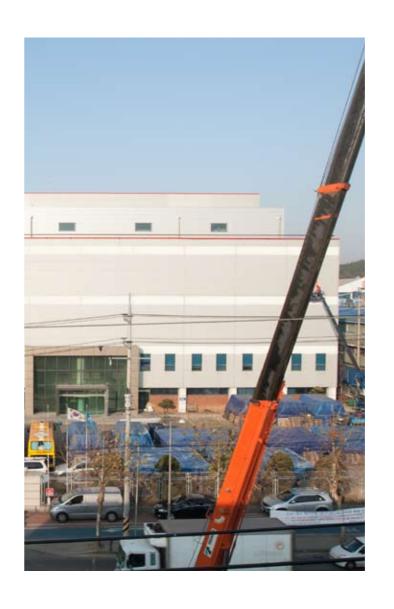
Wodiczko, Krzysztof. (2001). "Interview: KrzystofWodiczko on Alien Staff. Dialogues in Public Art.Cambridge: MIT Press The idea of a public is a cultural form, a kind of practical fiction, present in the modern world in a way that is very different from any analogues in other or earlier societies. Like the idea of rights, or nations, or markets, it can now seem universal. But it has not always been so. Its conditions have been long in the making, and its precise meaning varies from case to case -especially now, as it has found such variable extens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There are ambiguities, even contradictions in the idea. As it is extended to new contexts and new media, new polities and new rhetorics, its meaning can be seen to change in ways that we have scarcely begun to appreci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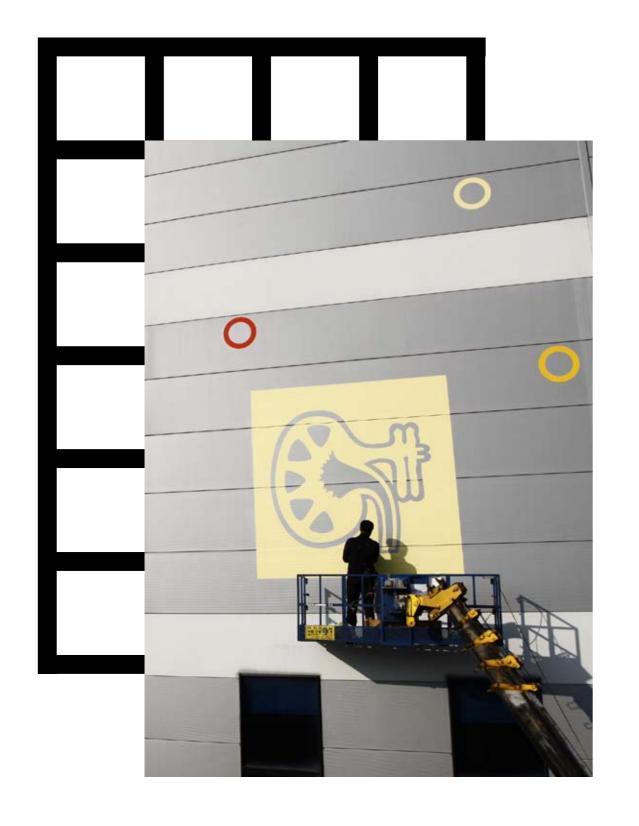
Warner, Michael, (2005). Zone Books New York.

The creative act takes another aspect when the spectator experiences the phenomenon of transmutation: through the change from inert matter into a work of art, an actual transubtantiation has taken place, and the role of the spectator is to determine the weight of the work on the esthetic scale. All in all, the creative act is not performed by the artist alone: the spectator brings the work in contact with the external world by deciphering and interpreting its inner qualification and thus adds his contribution to the creative act. This becomes even more obvious when posterity gives a final verdict and sometimes rehabilitates forgotten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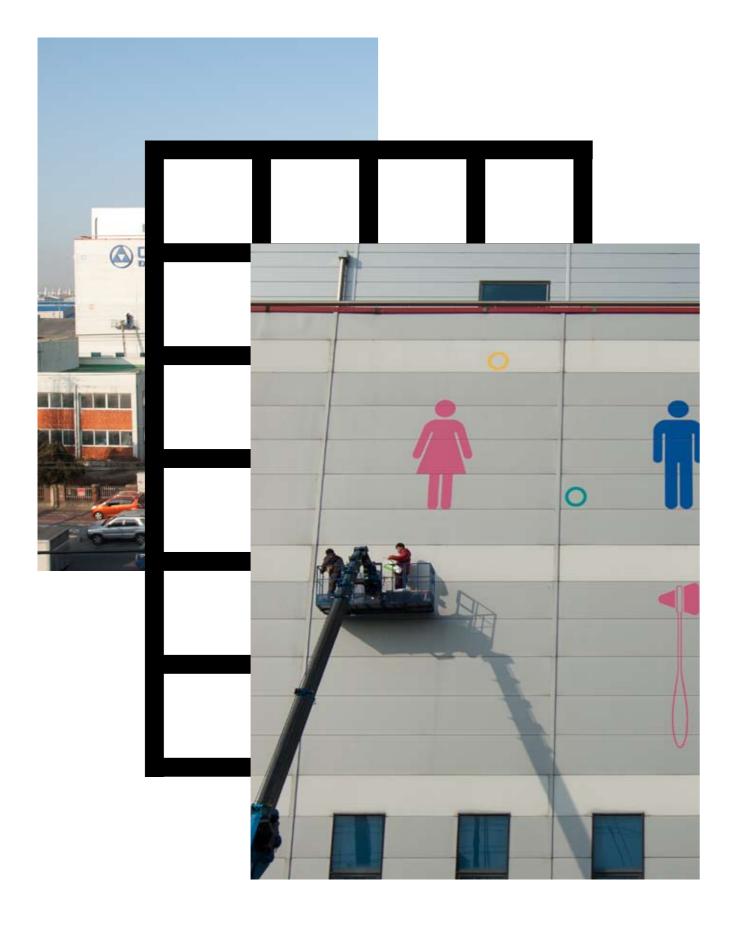
Duchamp, Marcel. (1957). Theories and Documents of Contemporary Art: A Sourcebook of Artists' Writings Kristine Stiles and Peter Selz (e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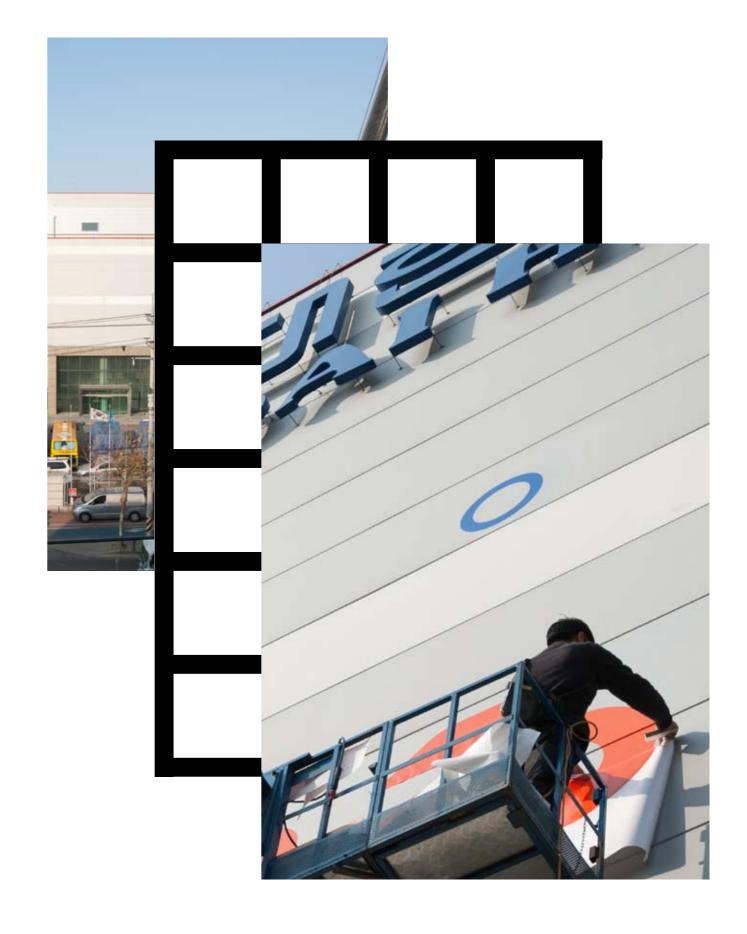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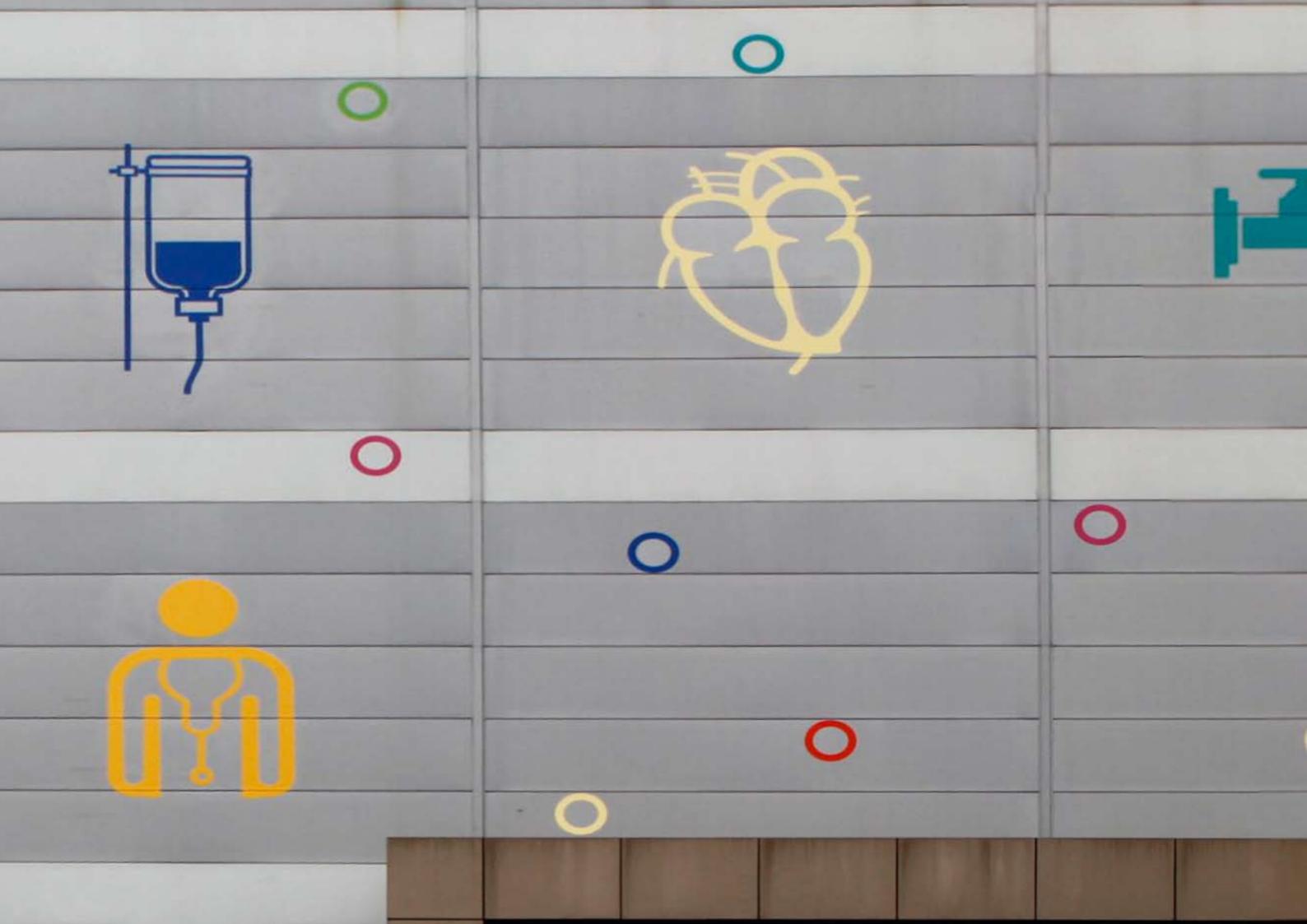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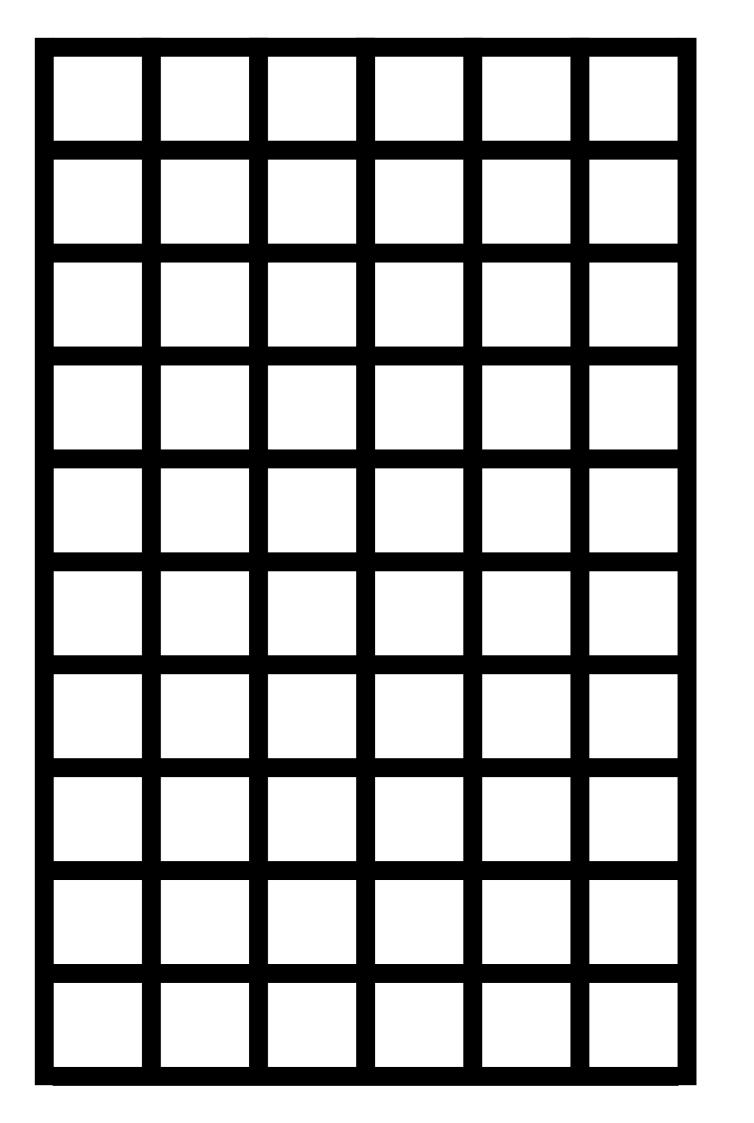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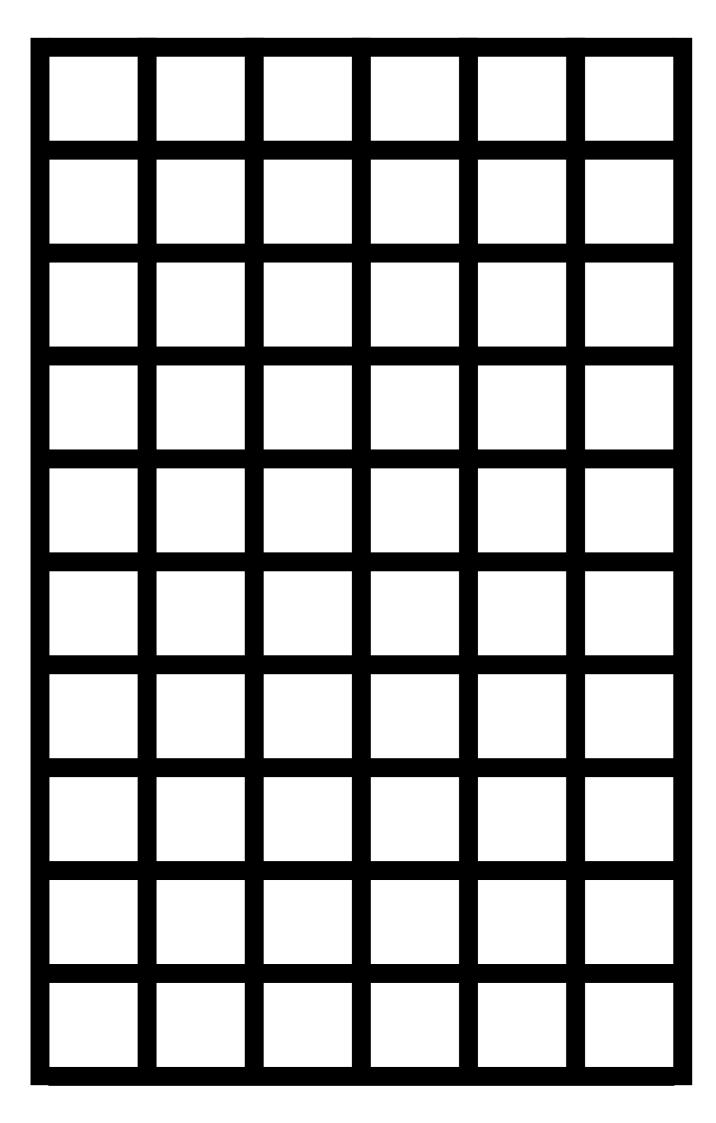












대화 : <sup>정현</sup>

미술평론

인터

텍스트

로서

공공

미술

Conversation:

By Chung Hyun

Art Critic

Public Art as Inter-text "사실상 코크타운에는 예술에 대해서는 단하나의 질문, 즉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밖에 없다. 만일 그 답이 화폐로 환산될수 있는 것이라면 그 예술은 노동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며 산출을 증대시키는 기계와 거의 같은 정도의 만족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루이스 멈포드, 유토피아 이야기 중에서 (1)

"나는 카페 뮐러에서 직접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가 다시 공연을 시작할 때, 내가 아주 중요하게 느꼈던 감정에 다시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달라져서, 눈꺼풀을 내렸습니다. 아래를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았습니다(실눈으로 바라보거나 눈을 위로 향해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올바른 감정이 바로 잡히더군요.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경험이었던지… 매우 세밀한 감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나 바우쉬, 영화 〈피나〉 중에서 (2)

인공도시와 역사의 재구성

공공미술의 흐름에서 산업도시와 공공기념물 사업의 관계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자아냈다. 산업화의 유토피안 이념이 투영되었던 1960-70년대 공업단지와 기념조형물의 연관성을 연구한 김미경은 "특히 1960-70년대 수출입을 위한 무역항이 확장되고 공업도시들이 조성되면서 이들 지역에는 국가발전의 동력이자 공업화의 성지로서 지역의 자부심을 담은 도시랜드마크가 경쟁적으로 건립"되었다고 밝힌다.(3) 그는 1962년 11월 13일, 부산직할시로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직할시 승격기념탑〉이 세워지고 최초 공업특구 울산, 이후 포항 등지에 세워진 기념탑들은 대부분 노동자를 찬미하는 웅장하면서도 계몽적인 조각이라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점은 조각양식이 러시아 혁명을 상징하는 사회주의 조각을 차용하였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공업단지, 산업도시는 경제개발시대의 이상주의를 담고 있다. 안산의 경우, 1977년, 안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개발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세워진 공업도시이다. 서울에 산재한 공장을 한데 모아 과밀한 서울인구를 분산하고자 조성된 안산은 1987년 서울 올림픽을 한 해 앞두고 이주의

신호탄을 쏘았다. 인구 30만을 목표로 개발된 안산은 현재 인구 70만이 주거하고 있으며 그 중 4000여 개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1만의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도시로서 안산은 울산, 창원, 구미, 포항과 같이 한국산업의 원동력을 이룬 도시와 달리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특징 때문인지 위에 열거한 공업단지가 시대적 이념을 상징화 하는 것과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안산은 1차 공업도시와 달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김동리, 윤후명, 전채린, 신카나리아, 장동휘 등 700여명의 예술인이 이곳에 세워진 예술 공동체 마을로 이주한다. 그들은 같은 해 '별망성 예술제' 행사를 개최했고 현재는 안산예총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작년 (2011)에 25회 행사를 마쳤다. '안산별망성예술제'는 안산시 초지동에 위치한 조선시대 석축 성터인 별망지의 명칭에서 유래하는데, 그 이유는 문화적 역사적 문맥의 부재를 채워 그 위에서 시간의 연대기를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리라 미루어 짐작해본다. 안산신도시의 경우 주목할 점은 초기 공업단지에 적용되었던 계몽적인 산업기념비를 세우는 대신 예술 공동체를 운영하려는 시도에 있다. 2011년까지 25회를 이어온 이 행사는 문학, 서예, 연극, 영화, 무용, 미술 및 대중예술 공연까지 포함된

"Coketown has, in fact, only one question for the arts to answer: What are they good for? If the answer can be expressed in money, the art in question is taken to be almost as satisfactory as a device to save labor, to increase speed, or to multiply the output."

The Story of Utopia by Lewis Mumford 1)

"I danced in CaféMüller myself. We all have our eyes closed. When we did a reprise, I couldn't get the feeling back, a feeling that mattered so much to me. All of a sudden I noticed that it makes a big difference, behind closed eyelids, whether I look down, or like this. That made all the difference! The right feeling was there immediately. Unbelievable how crucial that is. The thiest detail matters. It's all a language that you can learn to read."

Film Pina, Pina Bausch 2)

An artificial city and the recomposition of history

A considerably interesting outgrowth was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ustrial city and public sculptural installations in the stream of public art. "As trade ports for exports were expanded and industrial cities were created, especially in the 1960s and 1970s, landmark sculptural installations were competitively set up to showcase the cities' regional pride as sacred places of industrializ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aid Kim Mi-kyung who studied correlations between industrial complexes and sculptural structures in the 1960s and 1970s which reflected the utopian ideology of industrialization3). The Busan Monument built for celebrateing Busan becoming a directcontrolled municipality on November 13, 1962 and other monuments set up in Ulsan, the first industrial special district, and later Pohang are all magnificent sculptures honoring workers. Noteworthy is that the style of these sculptural installations were

appropriated from socialist sculpture, but it is known there was no criticism in this regard.

형식적 연례행사로 내용보다 안산시민에게

Industrial complexes and cities were driven by idealism in the era of economic development. Ansan is the first industrial city set up in 1977 to decentralize Seoul's population by moving factories in Seoul to its industrial complex. In 1987, one year before the Seoul Olympic Games, the Seoul population began migrating to Ansan. 0.7 Millionpeople including 0.11 million laborers working in about 4,000 plants currently reside in the city developed to accommodate only 300,000. Unlike other industrial cities such as Ulsan, Changwon, Gumi, and Pohang that have driven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Ansan as an industrial city characterized by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hows a different approach to the ideologies of the times. Unlike the first-term industrial cities, there is an artist community village in Ansan of about 700 artists including Kim Dong-ri, Yoon Who-myung Jeon Chae-rin, Shin Canaria, and Chang Dong-hui. These artists inaugurated the Pyolmangsong Art Festival in the same

제공되는 공공적 의미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1980년대의 엄격한 사회적 정서나 현실과 무관한 전시행정주의를 떠올리면 과거 역사와는 무관하게 개발된 인공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일방적인 민족주의의 산물로 재생산하려는 의도는 어쩌면 당시로서는 당연한 접근이었을 터다. 이런 예는 비단 한국사회 만의 관료주의의 폐해는 아니다. 포스트모던시대에 진행되는 수많은 도시개발을 위한 공공미술과 문화 사업조차도 별망성예술제처럼 여전히 향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향수는 여러 형태를 취한다. 과거의 위대함에 호소해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과거의 유물들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보존하기도 하며, 포스트모던적 토속주의(vernacular style) 를 채택하기도 한다. 개발 사업이 파괴시킨 장소들이 여전히 개발사업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허상을 심어주는 데 향수를 활용하는 것이다."(4) 이 행사가 지닌 흥미로운 점은 도시개발과 예술의 정책적인 조우에 있다. 동시대 예술행정의 관점으로 보면 안산 예술촌은 일종의 창작스튜디오와 유사하며 또한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의 방법론에서 자주 적용되는 공동체 기반의 예술 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조르조 아감벤은 역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겨우 기표만 남은 역사의 흔적 (그는 폐품과 파편이라 표현한다)을 억지로 끼워

year. Last year the 25th Pyolmangsong Art Festival took place hosted by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of Ansan. The festival title derives from Pyeongmangji, the ruins of a Joseon castle located in Choji-dong, Ansan. Appropriating the title from the Joseon era is presumed to be part of efforts to continue a chronicle by filling in the absence of cultural, historical contexts.

Notable in the city of Ansan is the fact that it made an attempt to run the artists community instead of just setting up a monument. The festival is an annual event encompassing literature. calligraphy, theater, film, dance, art, and even popular cultural performances. It seems to emphasize its public openness. Considering that the administration if displays in the 1980s was unrelated to the rigid social atmosphere and reality, the city's approach to reproducing culture as an outgrowth of unilateral nationalism was perhaps quite natural at the time. Like the Pyolmangsong Festival, numerous public art and cultural projects in the post-modern era still exploit nostalgia. "Such nostalgia appears in diverse forms. It is used to maintain political unity, preserving past artifacts in museums, and adopting the post-modernvernacular style. In other words, nostalgia is used to implant an illusion that the places destroyed by development projects still exist as part of such development projects."4)

맞추는 태도를 비판한다. 그는 "역사라는 놀이의 기본 규칙은 연속성의 기표들이 불연속성과의 교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의미기능의 전수가 기표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참된 역사적 연속성은 불연속성의 기표들을 장난감 나라나 유령 박물관으로 추방해 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기표들을 과거로 되돌리고 또 미래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것들과 어울려 '놀아야 하며' 그것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수긍하는 데서 생긴다."(5) 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의미기능인데 폐품과 같은 기표만을 유지시켜 공동체의 동질감을 만들어내려는 의도는 온전히 뿌리 내리는 문화 생성을 저해하는 '나쁜 습관'이며 시각적으로는 '나쁜 취향'을 재생산할 뿐이다.

It is interesting is that the festival shows an encounter of urban development with art in terms of policy.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rt administration, the community village of Ansan is similar to an artist-in residence and also associated with the art project based on a community often quoted in the methodology of urban regeneration. Giorgio Agamben criticizes the attitude of putting the traces of history (he refers to them as waste articles and pieces)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history. Agamben writes "The basic rule of the game of history needs to remind the fact that the signifiers of continuity have to accept exchange with discontinuity, and handing down semantic function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signifiers. True historical continuity cannot pretend to discard the signifiers of discontinuityby confining them to a playland and a museum for ghosts but by 'playing'with them, accepts them so as to restore them to the past and transmit them to the future."5) What's matter is semantic function. The intention to create a community's sense of kinship like a waste article is 'a bad habit' impeding the creation of culture, only reproducing visually 'bad taste'.

### 위성공업도시

글 초입의 첫 번째 발췌문에 등장하는 '코크타운'은 디킨즈의 소설 "어려운 시절"에 묘사된 19세기 중반 영국의 한 공업도시에 관한 내용으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기업의 이기심으로 비롯된 노동자의 힘겨운 삶과 저항을 그린다 도시와 유토피아의 관계를 주목했던 멈포드는 코크타운과 컨트리하우스를 비교하면서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계층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건축양식의 차이를 주목한다. 도시, 스타일, 취향 등은 개인의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즉 주거지의 지리적 사회적 위상과 건축양식 그리고 개인의 문화적 취향은 특정한 아비투스(사회적 장)를 형성하고 다양한 아비투스들은 수직적 위계에 의해 구성된다. 컨트리하우스와 코크타운의 비교는 19세기 말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실의 풍자이기도 하다. 도시의 생성은, 그 곳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조성되었다 해도 시대의 이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공장지대는 한때 근대의 이상을 대표하는 신화적 장소였으나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산업단지, 공장지대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과거보다 더 변방으로 내쳐지는 형편이 되었다. 게다가 국내외 도시 간의 경쟁이 점점 더

### The satellite industrial city

Coketown in the first excerpt above is an industrial city of mid-19th century Britain that Charles Dickens depicted in his novel Hard Times portraving workers'tough life and resistance caused by greedy firms caring only of profit. Comparing Coketown with the Country House, Mumford highlights not only a hierarchical gap between laborer and entrepreneur but also the gap in architectural styles. One's style and preference is determined by one's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A specific 'habitus' is formed by an abode's geographical location, social status, architectural style, and an individual's cultural propensity, and is constructed in a vertical hierarchy. Mumford's comparison of Coketown and Country House is not only a depiction of British phenomena in the late 19th century, but can be applied to our society's pervasive reality. The creation of a city reflects an idea of the times even if it is formed in an inevitable situation. An industrial district was once a mythic place representing a modern ideal, but industrial complexes and factory districts are socially and culturally ousted to the border areas. As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cities becomes more gradually cutthroat and ranking cities is regarded as natural, industrial cities and complexes have become

치열해지면서 도시 간 서열 나누기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산업도시, 공업단지는 소외된 도시, 차별과 이주민이 섞인 혼탁한 도시라는 편견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 한 도시와 그 도시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다른 곳보다 오히려 서울 주변의 위성공업도시에서 더 쉽사리 감지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안산의 경우, 안정적인 공업도시로의 발전은 생각보다 더디었고 인천, 안양, 부천과 같은 이웃도시와 문화적으로 발전 속도를 비교해보아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었다. 부천의 판타스틱 영화제, 안양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APAP) 그리고 지리학적 요충지로서 인천은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국제표준규격의 도시로 진화 중이다. 2006년 경기도 미술관 개관 이후 2009년 경기창작센터가 문을 열면서 비로소 안산은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문화 인프라가 형성되어 최근에야 안산 및 경기도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묻는 시도가

부정적 가치 사이에 존재하고, 이런 모순과 이중성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성, 변이, 진화 소멸의 과정에 의해 삶과 장소, 일상과 일, 생산과 소비 교육과 높이 지식과 경험이 함께 공존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 신도시와 같은 유사한 개발도시는 삶이 아닌 생존을 위한 조건만을 표방한다. 이에 반해 안산의 정체성은 최근 10년 간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의해 다문화의 센터로 그 정체성이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도시에 다종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혼재하는 사실만으로도 그 장소는 흥미로운 곳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과 소외를 받는 일종의 게토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과 같이 타문화에 대한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현재 안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채의 팔레트는 귀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주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부정적인 문화적 자산임이 분명하다. 현실의 삶과 분리된 상태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주도의 계획도시는 형식적 구성물에 불과한 유토피아적 사업이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는 이상과 미래는 더욱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들의 미래가 것은 아닐까. 어쩔 수 없이 한 도시는 도시를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하는 시각적 문화적 지역적 역사적 인천과 같은 개발도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상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정부주도의 과잉투자가 삶과 이야기가 거세된

위생도시, 명품도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보호지대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터로서 도시는 긍정적인 가치와

도시의 이야기와 분리된 혹은 지나치게 정부 주관에 의해 조성된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닫힌 정체성'의 한계이다. 닫힌 정체성은 관료적이고 습관적이며 전제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다. 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원 김홍도의 고향이라 사싴은 지역 명칭에나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죽은 언어'니 말이다. 아마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을 조망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론이 지역의 역사를 현재 공간에 이식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론이 지역 명칭과 축제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행정적 섬세함의 결여로 보인다. 실존적이고 실천적인 삶이 생산하는 자율적인 문화가 여물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지지해주는 것이야말로 관료적 일방통행이 만들어낸 소비만 있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개발도시를 되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marginalized, discriminated against, and turbid with migrant workers. A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industrial city and its dwellers is more easily sensed in Seoul's satellite cities than in Seoul. Ansan's development to a stable industrial city was slower than expected, and its cultural evolution was also slower than its neighboring cities like Incheon, Anyang, and Bucheon, Bucheon and Anyang were culturally inspired by the Bucheon Fantastic Film Festival and the Anyang Public Art Project, while Incheon as a geographical hub evolved into a city fit for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hu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t was not until the opening of the Gyeonagi MoMA in 2006 and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in 2009 that Ansan's cultural infrastructure and identity encompassing its local and global quality was formed. More recently, an attempt to reexamine Ansan and Gyeonggido's socio-cultural identity is gradually being made. I do not see Ansan's slower economic and cultural growth in comparison with its surrounding cities as negative because the future of new towns created by government-led

The reason why a developed city like Incheon has been controversial is due to the reproduction of sanitary cities, quality cities, and protective zones, made by government-led excessive investment. A city as site

projects is shaky when a turnover of

political power is made.

of life exists in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In the city, life and place, daily life and work, production and consumption, education and leisure, knowledge and experience coexist, constantly undergoing creation, modification, evolvement, and extinction within contradiction and duplicity. However, a developed city like the Incheon new town advocates only conditions for survival, not life. To the contrary, Ansan has been developing its identity as a multicultural hub with an inflow of migrant workers for 10 years. A modern city can be an interesting place only if a wide range of cultures and races congregate in mixtures with one another. A multi-cultural zone in Korean society is often a ghetto, whose members are often discriminated and marginalized. In reality, Korean society lacks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especially Asian cultures). However, the palette of diverse colors Ansan presently has is surely an invaluable cultural asset. A city can never be free from visual. cultural, regional, and historical symbols representing the city. However, an image separated from the city's real stories, representing an area formed by excessive governmental initiatives may cause a reverse effect. This is the limit of a 'closed identity' that is constantly bureaucratic, habitual, and despotic. It is the same with Ansan: the fact that Ansan is home of Danwon Kim Hongdo is symbolically left in the name of

this region. When developing a new town, a general methodology to view the continuity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helps transplant local history to a present space. However, an application of this methodology unconditionally to the region's name and festivals is probably due to a lack of administrative care. Watching the maturing process of an autonomous culture produced by an existential, practical life, and supporting this culture is a way to revive abureaucratically, unilaterally developed city that is pervasive with rampant consumption but has no vitality.

장소란 주관적이고 지역적인 사건이 보편적인 공통의 이야기가 된 공간에 부여된다. 그래서 장소는 까다롭다. 누구나 들를 수는 있지만 아무나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장소는 보이지 않는 규범과 관습에 의해 배척적인 태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장소는 그저 물리적 공간과 주거의 조건만을 제공한다. 그곳은 주인이 없기에 갈 곳 없는 이, 이방인, 떠돌이가 머문다. 비-장소는 정주하는 곳보다는 잠시 머무는 곳에 가깝다.

비-장소들은 "정체성, 관계, 역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없는 공간이다. 예컨대 공항이나 도로, 익명의 호텔 방, 대중교통이 그것들이다."(6) 전 지구적 현상인 잦은 이동과 이주의 현실은 더 많은 비-장소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도시도 포함된다.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는 이야기 대신 스펙터클을 제공한다. 대규모 상업지구와 주거지 그리고 일터로 오가기 위한 도로망 그리고 최근에는 여가생활을 위한 환경도 함께 제공된다. 지그만트 바우만은 이런 공간을 '예의 없는 장소'라 부른다. 예의 없음은 이 장소들이 사람을 반기는 대신 웅장한 기념비로 세워진 건축물만 바라보도록 지시하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개발된 한국의

신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풍경으로 구성된다.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는 도시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주거지들은 그 주변을 병풍처럼 채우고 있다. 또는 유럽풍의 카페들이 운집한 모사품의 거리를 재현한다.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종의 덤으로 제공된다. 반면 초기 공업단지 역시 유토피아의 꿈이 반영된 신도시였다. 문제는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중소기업이 운집한 공업단지일 것이다. 이런 공업개발도시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점점 더 비-장소로 변모해 간다. 이런 도시들은 불가피하게 이방인의 공동체로 변모하면서 주류사회로부터는 격리되는 일종의 게토가 형성된다. 개발도시는 주변과 대화하지 않는다.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제공되어 있지만 이 도시는 거주민에게도 방문객에게도 주변도시와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대화를 상실한 이 도시들은 마치 자기최면에 걸린 것처럼 마구 뒤섞인 상태로 존재한다. 이는 마치 현실과 분리된 예술세계를 추구했던 모더니즘 작가의 자족적 탐닉의 모습을 옮겨 놓은 듯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종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혼재하는 이질성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부는 계층과 취향 등에 따라 서열이 나뉘어져 있다. 도시내부가 수많은 장들의 서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도시 사이에도 이러한 서열은 존재한다. 대도시(metropolitan)와 도시(city)가 나뉘고 도시들은 또 행정적으로 부여된 의도된 정체성을 통해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들은 대도시의 모사물 (simulacre)에 가깝고 대도시는 근대 대도시의 원형을 따라간다. 근대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해체되었다기보다 모더니즘이 지시했던 분리주의를 현실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듯하다. 도시와 미술의 관계를 연구하는 말컴 마일스는 "'질서의 도시' '자유로운 순환' '불결한 것들이 말끔하게 치워진 경치' 등을 이룩하려 했던 19세기 계몽주의자들과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의 전리품은 아마도, 삶과 지식의 분리이며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풍자하듯 교외의 고급 주택들일 것이다"(7) 라고 역설한다. 도시재생이나 미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미술정책에 의해 기획된 시도들 역시 근대도시 속에 자리 잡은 모더니즘 미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장소-특정적 미술 연구가 권미원은 모더니즘 추상조각을 도시에 설치하는 1960-70년대 미국의 공공미술을 "공공미술에서 '공공'이라는 수식어는 미술작품 자체의 어떤 양상보다는 미술작품이 놓일 장소의 원래 조건에 대한 인식에 기인"(8)했다고 해석한다. 당시의 예술가들은 장소에 관한 입체적 해석보다 오직 미학적 관점으로 장소를 바라볼

# Non-place

A place has common narratives derived from subjective, local incidents. Anyone can visit there, but not everybody is accepted easily. The place hides an inclusive attitude in its rules and mores On the contrary, a non-place offers only a physical space and the conditions for an abode. As there is no owner, a wander or a stranger may stay there. The non-place is closer to a temporary space rather than a permanent space. Non-places have no symbolic expressions of identity, relation, or history. Airports, roads, hotel rooms, and mass transportation are examples of these non-places.6) More non-places are created as travel and migration becomes globalized. Developed cities include non-places. A newly developed city presents spectacles instead of narratives

The city has commercial districts. residential areas, road networks, and facilities for leisure. Zygmunt Bauman calls such spaces 'a rude place'. Its rudeness derives from its magnificent monumental buildings that seem to

exclude humans. Korea's new towns developed since the 1990s are like thi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discount stores are located at the center of a city, and encircled by residential areas. Such towns have streets lined with European cafes, plus trails and bike lanes. The early industrial complex was also a new town reflecting a utopian dream. An industrial complex where numerous small and medium firms gather is more greatly influenced by a paradigm shift in the industry. These industrially developed cities have socio-culturally become non-places. As the city turns into a community of strangers, a ghetto separated from the mainstream society is formed. The developed city does not converse with its surroundings. The city offers all necessary conditions for life, but never communicates with residents, visitors, and neighboring cities. The cities appear self-hypnotized and blend rampantly with other elements. This is like a self-contained appearance of a modernist artist who pursued the world of art separated from reality. The society we live is comprised of a

mixture of heterogeneous elements such

as diverse cultures and races. Its inner side is ranked by strata and preferences. As its inner side is ranked, each city has its rank: small town, city, and metropolis. Each city is distinguished from other cities by its administratively given identity. Most of cities are simulacra of a metropolis, and the metropolis seeks the typical form of a modern big city. Modernity seems to apply separatism to reality more concretely rather than being deconstructed by post-modernism. Malcolm Miles studying the relation between city and art stresses that "The spoils of the 19thcentury obscurantist and 20thcentury modernists who tried to attain 'the city in order', 'unrestricted circulation', and 'landscape without dirt' were perhaps separation of life from knowledge or luxurious houses in the suburbs as postmodernism lampoons."7) The attempts planned by public art policies aiming at urban regeneration and beautification could not escape these modernist aesthetics. Kwon Mi-won who studies site-specific art interprets American public art projects in the 1960s and 1970s of setting modernist abstract sculptures in cities

뿐이었다. 한국에서의 공공미술 역시 모더니즘 미학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최근에서야 문화인류학적 접근의 공공미술과 행위나 태도를 중요시하는 공적 발언으로서의 공공미술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공미술은 도시를 미술품으로 진열하는 도시 갤러리라는 모더니즘의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2010 디자인수도 서울)에서 보여준 아름답고 위생적인 도시 만들기 사업은 전시효과만을 부풀린 홍보용 행사가 되어 버렸다. 결국 대개의 공공미술프로젝트와 도시의 조형물들은 기존의 미술관을 외부로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현대인의 삶과 도시의 구조가 불일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미술 역시 공공성과는 무관하게 분리된 '예술을 위한 예술'로 남고 말았다. 공공미술연구가들이 입을 모아 공공미술을 비판하는 이유가 실제 대중에게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미술' 또는 아예 무관심한 미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공미술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탈산업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두바이 상하이 도쿄 서울과 같은 도시는 삶의 현장이기보다 테마파크와 같은 오락 여가 관광을 위한 상표에 더 가까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공공미술은 대도시라는 거대한 엮임 위에

스펙터클을 만드는 정치적 산물 또는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신세계 백화점과 제프 쿤스의 협업으로 탄생한 "Sacred heart" 를 떠올려 보자).예를 들어, 전형적 공공미술은 산동네 담과 지붕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를 그린다. 그 속에서 잃어버린 정과 훈훈한 인정을 되찾았다고 말한다. 이런 공공미술은 마치 주중 내내 방송되는 〈6시 내 고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투적 문구와 전혀 다르지 않다. 상투적인 공공벽화들은 향수를 좋는 사람들과 파워블로거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 향수 역시 무형의 상품으로 무차별적인 관광주의의 단면이지 않은가. 오늘날 도시와 미술의 융합은 경제와 분리되어서 생각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공공미술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나 지역 홍보를 위한 상징으로 도구화 되는 것은 위험하다

## Organic places

유기적인 장소들

이 글은 〈2011 예술 공단 한 뼘 프로젝트〉

에 관한 것이지만 본 프로젝트를 빌려 나는

도시와 문화, 지역과 미술관, 기업 메세나와

지역문화간의 만남을 생각해보려 한다. 글

그녀가 직접 출연한 무용극 "카페 뮐러"의

초입의 두 번째 발췌문은 독일 현대무용극을

대표하는 피나 바우쉬의 육성을 녹취한 내용으로

유일한 무대 소품이었던 의자들이 원래와 조금

다른 걸 감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약간의 차이,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이 눈을 치켜세우거나 내려서 보는

차이만으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녀의

소감은 사물, 사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심리적으로 얼마나 강한 변화를

내용은 아니다. 그녀가 현장에서 느낀 낯섦은

묘사하고 있다. 자신이 변하듯 환경 역시 늘

예술가로서의 시적 경험 이전에 실존적인 상황을

변하는 존재로 대할 때 비로소 작품이 의도하는

감정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진술은 '소통의

기술'이 곧 '예술의 기술'로 이행하는 첫 번째

통과의례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처럼

한 예술가가 자신과 세상이 조우하면서 발생하는

일으키는지를 잘 알려준다. 물론 그녀의

담담한 말이 도시나 공공미술을 지시하는

Although this essay is about the 2011 Ten-inch Project, I'd like to talk about encounters between city and culture, region and art museum, and Mecenat and local culture. The second excerpt at thebeginning of this essay is from the voice of Pina Bausch, a German performerof modern dance, accounting for the situation she sensed in the chairs in Café Müller, a dance drama. Her feeling that things can look different by slight change in the angle of view denotes how much psychological change one may undergo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 toward objects, incidents, and the world. Of course, her quiet utterance does not refer to a city or public art. This utterance speaks of the unfamiliarity she felt at the site, and an existential situation rather than a poetic experience she had as an artist. The statement that one can enter what an artwork intends to provoke when one addresses the environment as an ever-changing being, seems to mean 'the art of communication' is the first condition to move to 'the technique of art'. An artist's changes in feeling are identical with those aroused from 'an encounter of the city with art', this essav's subject.

I often think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ully understand a city since a wide variety of lives and narratives are

as "projects derived from the perception of the sites where artworks are placed rather than the artworks themselves "8) Then American artists saw places from aesthetic perspectives rather than trying to interpret them comprehensively. Public art in Korea was confined to modernism aesthetics for many years,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ward public art and public art as public statements underscoring activity and attitude have been recently made. But, most activities for public art are still based on the modernist perspective regarding acity as a space to place artworks. Projects for creating a beautiful, sanitary city like the 2010 Design Capital Seoul were promotional events only for display. Since most public art projects turned out to be mere attempts to expand the museum space to the outside, they were criticized. As contemporary people's lives are in disharmony with urban structure. public art has remained 'art for art's sake' separated from community. Researchers of public art criticize public art because it is 'too far away from the general public'or art disinterested in a relationship with the general public. Nevertheless, works of public art have been constantly produced. During the post-industrial era large cities such as Paris, London, New York, Berlin, Dubai, Shanghai, and Seoul have become trademarks for entertainment and leisure time rather than the cites

for life. In addition, public artworks have become political products or commodities generating spectacles in a colossalentanglement. (We may recall Sacred Heart produced by Jeff Koons in collaboration with the Shinsegae Department Store.) For instance, in a typical public art project artists paint murals on the walls and roofs of the houses in a hillside village, saying that they recovered lost affection and warm heart. Such public art is almost like a cliché repeated in a television program. Such banal paintings are often in the highlights of those seeking nostalgia and some power bloggers. Nostalgia can be an intangible commodity, showing an aspect of rampant tourism. Although the reality today is the fusion of the city with art cannot be divorced from economy, the instrumentalization of public art as the means to keep the price of real estate high or to promote a region is perilous.

감정의 변이는 이 글의 주제인 '도시와 미술의 만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주 드는 생각인데, 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력처럼 보인다. 현재의 도시가 영속하기까지의 시간의 지층 위에는 다종다양한 삶과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5-10년 사이 건축. 도시연구, 시각예술, 공공미술 및 지리-정치학 등은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회구조. 일상, 이념, 가치관 등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도시인문학의 발달과 담론의 적극적 생산에 비해 실제 공공미술의 결과물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전형적인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지식과 행동의 융합적 실천이 부족한 이유는 아마도 공공미술이 곧 공공사업이란 좁은 관점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일 것이다. 넓은 의미로 공공미술은 장소의 탄생에서부터 소멸까지 그리고 새로운 변이의 순환과정을 다양한 행위와 언어 (글, 이미지, 기록, 퍼포먼스, 전시, 조형물, 미디어, 블로그, 인터넷, 플래시몹)로 관찰하고 개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오늘의 공공미술은 생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의 생태란 친환경적 의미라기보다는 푸코가 말한 생-권력처럼 도시, 문명을 인공물(artefact)이 아닌 하나의 생태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적어도 지난 십년 간 국내외의 공공미술 실험 가운데 성공한 사례들은 정부주도의 제도적 차원에서 생산된 공공미술보다 독립적인 대안공간의 자율적 실천을 들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많은 대안공간들이 정부기관의 제도적 지원에 의해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실천적 미술의 패러다임과 지역과의 교감을 더욱 구체화한 주체는 다름 아닌 대안공간의

condensed in the layers of its time. As mentioned above, in the past 5-10 years architecture, urban studies, visual arts, public art, and geo-politics have paid attention to social structures, daily life, ideas, and values centering on the city. While the humanities addressing the city developed discourses in this regard are produced, actual results from public art are typically not achieved despite active theological discussions. The reason the practice of fusing knowledge into actions is insufficient is perhaps public art is understood from the narrow viewpoint of the public project. In a broad sense, public art encompasses observation of and involvement in the birth and extinction of places, and the cycles of transformations through diverse activities and languages(text, images. records, performances, exhibitions, sculptural installations, media, blogs, the Internet, flash mobs) Public art today requires an ecological approach. Ecology here means to

An example is the Beijing-based art,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consider the city or civilizationas an ecological structure rather than an selling artists' design works. artificial construct as in Michel Foucault's 'Biopower'. In the last 10 years successful small centers producing autonomous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둔 자율적인 문화적 플랫폼을 만들고 그 주변과의 만남과 대화를 유도하고 이 과정을 기록(archive)한다. 한 예로 베이징에 플랫폼을 둔 홈샵(家作坊 HomeShop)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축, 도시연구, 문화연구와 예술을 연동시켜 소통과 교감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창작공동체다. 홈샵은 베이징을 연구의 원천으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 속에서 중국의 변화를 다각적인 시선으로 관찰 기록하면서 동시에 작가들의 디자인 작업을 판매하는 상점의 기능과 레지던시를 운영 등을 통해 주변의 삶에 가까이 다가간다. 한국의 경우, 특히 경기도에 산재하는 대안공간들은 자율적 문화를 생성하는 작은 센터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삶의 기슭으로 다가서는 노력이 대안공간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다. 이제 지역미술관은 수평적 입장에서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문화적 접점으로서의 '다리' 가 되어 중심과 주변, 제도와 비제도, 행정과 일상을 조율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다. 적어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중심과 주변 사이의 위계는 붕괴되었다. 포스트모던의 세계는 바로 중심-없음, 더불어 수많은 중심들의 공존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론적인 중심-주변의 붕괴가 아닌

실질적인 다양한 중심들이 교감하는 세계가 되기

위해선 데리다가 말하듯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군도(archipelago)'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instances of public art experiments

were not derived from government-led

public art projects but from independent alternative spaces' autonomic practices. Of course in Korea many alternative spaces have been nurtured by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stitutional support, but these spaces have contributed to animating communion between the paradigm of practical art and local areas. They create an autonomous cultural platform rooted in local communities, and revitalize meetings and conversations with their surroundings, recording these processes. HomeShop, a global creative community seeking communication and communion through the combination of architecture, urban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with HomeShop observes and chronicles changes in China due to globalization through multipronged perspectives, approaching our daily life through the running of an artist residence and a shop Alternative spaces scattered around the Gyeonggi area discover their identity as

culture. The effort to approach these

aspects of life, however, is not made

only by such alterative spaces.

인터-텍스트

이제 공공미술은 중세 이전의 사회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도적 형식주의와 엘리트주의 포퓰리즘 국제양식 동시대성 지역주의 변방 등 삶과 장소를 구별하는 방법론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멈포드에 따르면, "교양 있는 계층의 예술이 공동체 전체의 예술과 분리됐기 때문에 예술가 자신이 만족하는 수준 이상의 수준을 낳지 못하게 됐고, 이 점에서도 과학과 지극히 유사했다. 예술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분리된 세계가 됐다. 공동체에서 나오기 마련인 예술이 공동체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세련될 수 있게 됐다."(9) 멈포드는 예술이 실존적 삶과 분리되고 주변과 대화하지 않는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바람대로 20세기 후반, 미술의 혁명은 미학과 미술의 분리, 사회학이 미학을 대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관계의 미학'이 점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관계의 미학은 동시대의 삶, 작가의 개인적 일상이 곧 사회적 조건을 대변한다는 미시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해 관객을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로 상정한다. 이제 예술생산자는 작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계의 미학은 예술생산이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교환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1 예술 공단 한 뼘 프로젝트〉(이후 한 뼘 프로젝트)는 경기도 미술관이 지역기반인 반월공단과 함께 한 첫 번째 공공미술 사업이다.(10) 반월공업단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STX에너지 주식회사와 강익중, 가죽을 가공하는 해성아이다와 홍현숙

### Inter-text

We need to look back on society before medieval times in connection with public art. This does not mean going back to the past. It rather means the need to look back on the age before any methodology distinguishing life from place developed, such as institutional formalism. elitism, populism, international modes, contemporaneousness, regionalism, and border areas. "The divorce of the art of the cultivated classes from that of the whole community tended to deprive it of any other standards that the artist himself was content to erect. Here again the comparison with science is curiously pertinent. The world of art is in a sense a separate world, and it can be cultivated for a time without reference to the desires and emotions of the community out of which it has sprung."9) said Mumford. Mumford criticizes modernism in which art separates from existential life and art does not have conversationwith its surroundings. As he wished, in the late 20th century 'relational aesthetics' becomes gradually persuasive in the situation in which aesthetics separatesfrom fine arts and aesthetics is replaced with sociology. In relational aesthetics viewers are considered active, autonomous participants in relational aesthetics starting from the microscopic perspective that contemporary life or

그리고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와 박미나의 기업-작가의 협업은 각 공장의 성격과 연관된 이미지를 발췌해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공단이라는 비-장소의 영역 (non-places sphere)에 시각정체성을 부여했다. 강익중은 에너지와 물의 관계를 비유하는 한글 벽화를. 박미나는 약품회사를 상징하는 건강과 관련된 딩벳폰트 이미지로 이뤄진 슈퍼그래픽을 홍현숙은 공단근로자의 투박한 드로잉과 글을 활용한 벽면 그래픽 설치작업을 선보였다. 사실 한 뼘 프로젝트가 전개한 공공미술화법은 새로운 접근은 아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보다 경기도미술관이 공단이라는 안산의 지역정체성을 창작의 공간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미술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공공미술이 그저 도시문화에 스며들지 못하고 장식품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뼘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공공미술의 모델이 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한해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변 공단에 영감을 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텍스트로서의 공공미술'의 의미를 요약해보자. 첫 번째, 공단이란 특정장소에서 발췌한 이야기를 작업의 어휘로 사용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미술관, 기업, 작가, 장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계적 미학의 개념이며, 세 번째, 이질적인

an artist's individual life represents a

because relational aesthetics means

exchanges of diverse subjects.

Flowing with Art is the first public

art project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conducted in collaboration

Collaborative work between firms and

artists: STX Energy and Kang Ik-joong;

Haesung Aida and Hong Hyun-sook and

visual identity to the industrial complex,

Dai Han Pham and Park Mee-na lends

a non-artistic place with the image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tory. Kang lk-joong presents

between energy and water; Park Mee-

na works on the super-sized graphics

composed of the dingbat font images

symbolic of a pharmaceutical company:

graphic installation with rough drawings

and texts the industrial complex workers

and Hong Hyun-sook displays the wall

created. The idioms of public art the

project employs show no approach.

interprets Ansan's regional identity as

As reviewed above, the primary limit

ornaments without being permeated

a successful public art model, it has to

into urban culture. If the project could be

of public art is it remains as mere

However, the core is the museum

the space for creation.

the Hangul mural signifying the relation

with the Banweol Industrial Complex.10)

social condition. In this aesthetics only

the artist is not the producer of artworks

artistic production is completed bilateral

The Ten-inch Project, Industrial Complex

텍스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공단에 개입한 공공적 예술행위가 공단 정체성의 단조로움을 보충해주는 시각적 주석(visual paraphrase)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한 뼘 프로젝트가 어떻게 주변과 교감하면서 다양한 또 다른 이야기를 파생하는 데 달려 있다 힘겹게 찾아낸 한 뼘의 예술 공간이 더욱 새로운 공간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inspire the industrial complex artistically. not merely being an annual cultural event. In closing, the meaning of 'public art as inter-text'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stories extracted from a specific site, an industrial complex are sued for artistic work. Second, the project embodies relational aesthetics involving the museum, companies, artists, and places. Third, public artistic acts involving an industrial complex composed of heterogeneous texts can be interpreted as a visual paraphrase supplementing the industrial area's monotonous identity. The project's successdepends on how it brings up diverse narratives in communion with surroundings. It is hoped the artistic place, an industrial complex to be a new space.

루이스 먹포드 "유토피아 이야기" 텍스트 2010 222쪽 밬췌문 중 등장하는 '코크타운'은 찰스 디킨즈의 소설 "어려운 시절(1854) 의 배경이 된 공업도시를 익컨는 명칭으로 19세기 영국의 공업도시인 맨체스터를 비유하고 있다.

피나(Pina), 다큐멘터리 영화 간도: 빈 베더스 2011 영화 중에서 피나 바우슈의 인터뷰 녹취

김미정, 산업화시대의 유토피아적 비전 위의 책 53쪽

맬컴 마일스,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2000, 175쪽

조르조 아감벤, 유아기와 역사-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새물결, 2010, 163-4쪽

지그만트 바우만. "액체 근대". 도서출판 강. 2005. 167쪽

맠컴 마임스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2000, 37쪽

"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군제한숙 실포지운 (미술과 공중) 2009년 6월 20일, 18쪽

루이스 멀포드 같은 책, 286쪽

한 뼘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지역의 도서관 보건소, 고등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작품을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2011년 사업은 안산공단과 함께 한 최초의

사업으로 그 중 가장 규모가

In 2007 the 10-inch project

Lewis Mumford. The Story of Utopia, 2010, p.222. Coketown here referring to an industrial city, the ackground of Charles Dickens' Hard Times (1854) is Manchester, an English industrial city of the 19th

> Pina, a documentary film by Wim Wenders, 2011. Interview with Pina Bausch in the film

Kim Mi-jung, Utopian Vision in the Industrialized Era, p.53.

Malcolm Miles, Art, Space and the City, Hakgojae 2000, p.175

> Giorgio Agamben, Infancy and History: The Deconstruction of Experience, Saemulgyeol 2010, pp.163-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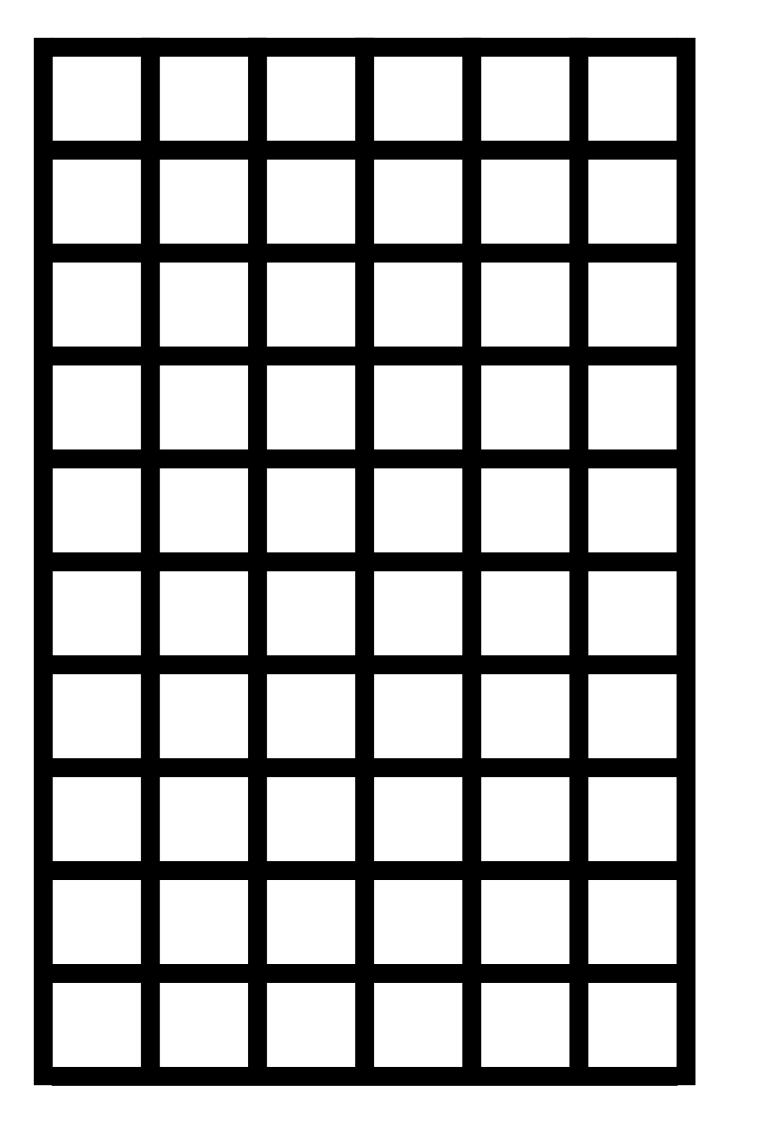
Zygmunt Bauman, Liquidity Modernity, Gang Publishing, 2005, p.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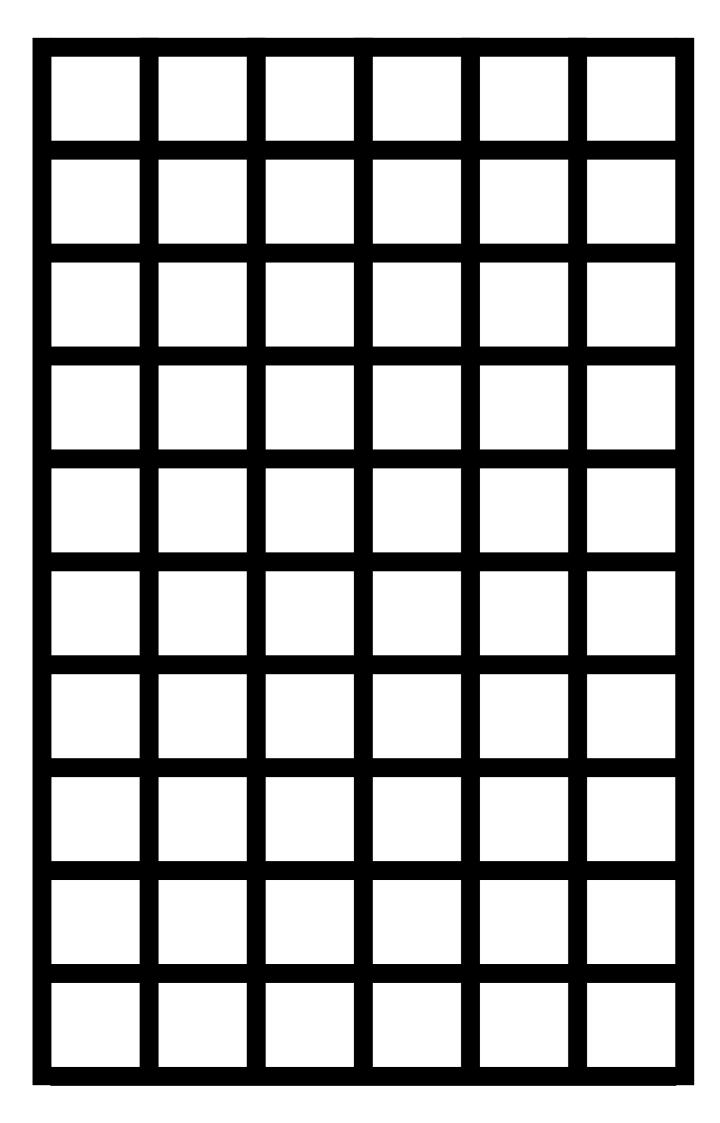
Malcolm Miles, Ibid. p.37.

Kwon Mi-won Art as a Public Statement, Art and the Public,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symposium, June 20, 2009, p.18,

Lewis Mumford, Ibid. p.286

inaugurated as a small work setting up artworks in public facilities such as local libraries, health centers, and high schools. In 2011 the project collaborated with the Ansan Industrial Complex became the largest one.





미술과 디자인

의

김승현

디자인비평

같고도

다른

공공선

公共善

The Same and Different Public Goodness of Kim Seung-hyun

Design Critic

Art and Design 보고 있을 때 나는 예술과 디자인의 역할 같은 것, 애써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장르나 미디어를 넘나드는 게 눈앞의 현상이라는 수준에서 품는 생각은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벌이는 대개의 일이 자신과 세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만큼 거기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영역의 그런 구분 따위가 대수인가 싶은 것이다. 세상에는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문화도 있다. "우리에겐 예술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발리 섬의 문화가 그렇단다. 어찌 보면 그런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며, 사실 우리가 그런 개념이나 구분을 떠나 있을지라도 의식주를 해결해가며 무난히 살아갈 수 있을 듯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빈치형 인간으로 무장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뒤섞어버리기에 너무 늦어버린 분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좋든 싫든 목표는 그런 정황 속에서 최고의 효율로 최대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발리 섬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다시 눈을 돌렸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술과 디자인이라면 왠지 혈연처럼 느끼는 듯하다. 하기야 조형적 완결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예술과 디자인의 공약수가, 이를테면 의학과 정치의 공약수보다 많기는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둘의 목적이 서로 다르면서도 그 목적의 가치가 공히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목적이 다른 그 둘이 닮아 보인다고 하는가? 그 둘은 과연 몸통을 맞댄 것일까? 그것은 가능할까? 이 글은 개운치 않은 그 의문을 따라가 보려 한다.

몰두하던 일상에서 빠져나와 잠시 먼 산이라도

While looking over the mountains, forgetting hectic daily life, I think if I need to try to distinguish design from art. I don't think this because the boundaries between genres of media have become blurred. Because most people create for their own happiness or happiness of the world, classifying the borders is of no significance. It is said that there are cultures that do not distinguish between the concepts of art and design. Bali is known to have such a culture. Balinese people often think "We have no art. We do our best." This attitude is extremely natural. If we depart from this concept and classification, we can live without difficulties in solving the necessities of

However, we are expected to become a uomo universale (a universally educated man capable of unusual achievements in many areas of the arts and sciences) like Leonardo da Vinci, living in an extremely classified world. Good or bad, we have to draw out the maximum happiness with the highest efficiency in this situation.

In Korea, people seem to feel arthas a close affinity with design. The common elements between art and design are larger than that of medicine and politics in that the two are closely associated with modeling completion. Nevertheless, we have to distinguish art and design because the two have different purposes. Why do people say the two look similar despite their different objectives? Do the two really have a close connection? This essay explores these questions.

예술과 디자인의 개념 문제를 예술가와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문제로 바꾸어 이야기해 보자. 본질적으로 디자이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이다. 통속적 의미의

'조형' 행위는 인류가 인간의 몸이 가진 능력을 늘리기 위해 도구를 만든 것이 최초이지만, '디자인'의 의미를 갖는 '조형'은 비교적 늦게 생긴 근대의 개념이다(우타 브렌다스). 익명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를 위한 대량생산이 기술 발달로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디자인'의 의미를 갖는

'조형'은 시작되었다.

우리 곁에서도 언젠가부터 '쓸모 있는' 물건이 선별되어 갤러리로 들어오고(당연히 팝아트나 레디메이드의 맥락은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양산된 디자인이 빈티지라는 명목으로 유리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으며, 노소를 불문한 자칭 디자이너들이 회벽의 큐브에서 개인전을 여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디자인이 예술의 범주를 잠식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몬드리안이나 모네의 그림이 에어컨이나 냉장고 표면에 복제되었다고 해서 예술이 디자인의 범주를 잠식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디자인의 결과물이 갤러리에 들어갈 때 그건 이미 하나의 오브제로서 둔갑한 상태이다. 그래서 그 사물은 오롯이 예술품이 되어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물신숭배의 표본이 될 뿐. 쓰임새 있는 물건으로서의 가치는 말끔히 증발한다. 아무리 명의로 이름난 자일지라도 그가 아파 병원을 찾을 때는 그의 명색이 의사가 아니라 단지 환자가 되는 이치와 같은 맥락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 저 유명한 필립 스탁의 레몬즙짜개 '주시 살리프'는 디자인의 이름으로 팔려나가는 '예술품' 중 가장 유명하고도 저렴한 품목 중 하나일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시 살리프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본연의 장식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시 살리프가 관상용 조형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앞에서 그것은 비싸고 몰가치한 살림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예술의 형태와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또 예전에는 엄격히 구분되는 듯했던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이 점점 더 섞이게 되면서 예술의 자율성이 덜컹거리는 느낌이다. 나는 " 예술은 예술이고, 예술이 아닌 것은 예술이 아닌 것이다."라는 애드 라인하르트의 말이 유효하다 여긴다. 이 믿음은 예술에 깃들기 쉬운 엄숙주의나 순혈주의 따위를 엄호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이젠 낡아버린 예술의 일품성 개념을 대량생산되는 공산품 디자인보다

#### Artist and Designer

The concept of art and design can be talked about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s, artist or designer. The designer is by nature Henhaestus, 'a blacksmith who fabricates a better world'. In a vulgar sense the first act of 'modeling' was to make tools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the human body, but 'modeling' for the purpose of design is a modern concept generated relatively late. (Uta Brandes) As the market gradually grows and technologies for mass production evolve, 'modeling' focused on design expands. Useful items are often chosen to be displayed at galleries (of course, it's not in the context of pop art or readymades). Mass-produceddesign goods are placed in a showcase, and designers hold their solo shows in a white cube. However, you would be wrong if you thought design encroaches on the territory of art, or art encroaches on the territory of design with paintings by Mondrian and Monet reproduced on the surfaces of refrigeratorsand air conditioners. When design enters a gallery, it has already turned into an object. The object becomes a work of art or an example of fetishism, losing its value as a useful item. It is in the same context that no matter how much a doctor is noted for his skill, if he is sick, he is only a patient. In my opinion Philippe Stark's Juicy Salif, a lemon squeezer may be one of the most noted, cheapest items among artworks sold as design. Juicy Salif is displayed as an ornament in most of homes. As soon as I consider this is not an artwork for appreciation, it deteriorates to only a high-priced. useless device.

As artistic styles and media are diverse, and arts and non-arts are mixed, I feel artistic autonomy wavers. I also feel Ad Reinhardt's statement "Art is art. Everything else is everything else" is effective. This statement is neither expression of a will to protect artistic solemnity and purity, nor expression of a will to respect artistic solemnity over mass-productivity of industrial design. This mean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rts and non-arts, and recognizing it is important. I feel the meaning of design today is unnecessarily complex. Some raise voices, saying design is highly

존중하겠다는 의지도 아니다. 다만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를 인지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디자인의 의미가 필요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이 인간의 일상 범주 대부분을 디자인의 얼개로 추려낸 후 그렇게 다 걸려들기 때문에 디자인이 당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이는 디자인이라는 활동의 중요성이 정말 그렇게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를 의식적으로 확장하면서 야기된 혼란일 뿐이다. 이 혼란은 자연스럽게 디자이너의 역할마저 확장시켜 디자이너에게 강박증을 주입시켜 놓았다. 디자인은 수공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술도 아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몇몇 디자이너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그러한 오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대중매체들이 물건의 겉모양으로 디자인을 이야기한다. 즉 그들은 디자인이 눈에 확 띄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디자인은 문화면에서 그것을 다루기엔 문화적인 가치가 적으며, 경제면에서 다루기엔 문화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디자이너가 아닌 사용자조차도 시달리는 그 기이한 강박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워지려면 디자인을 사물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사물을 만들지 말아야 할지에 관한 사고까지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우타 브렌다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술을 말하면서 기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 누군가 예술의 기능을 말해 보라고 한다면 거기엔 마음을 움직이는 기능뿐이라고 하겠다. 나의 생각에 예술의 목적은 마음의 활동을 돕는 것이고, 디자인의 목적은 신체의 활동을 돕는 것이다. 즉, 예술은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달라지게 하는 일이어야 하고, 디자인은 모든 살아 있는 존재를 위한 문제의 해결이어야 한다. 일례로 재료에 대한 접근만 보아도 다르다. 미술에선 재료가 지닌 힘, 이른바 물성을 최대로 끌어낼 때 마음도 그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며. 디자인에서는 마감재의 특질이 사용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료가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디어에서 무책임하게 흘러나오는 디자인은 유용한 예술 이라는 모호한 카피보다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루시우스 부르크하르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늘날 예술은 너무나 왜곡되어 나쁜 예술이 좋은 예술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예술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 자체가 상실되었다." 라고 일갈한 레프 톨스토이의 한 세기 전 문장도 되새길 가치가 있다.

significant today since all daily aspects involve design. However, the meaning of design has been made complex. consciously. This confusion has simply expanded the role of the designer, and makes the designer feel compulsive. Design is neither craft nor art. However regrettably, some designers are dedicated to maintaining the misunderstanding. Mass media also defines design as decorating the outer appearance of a product, with some evident, attractive appearance. Design today has little cultural worth but much economic worth it seems. If designers and users escape from obsession here. design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not a result. We need to recognize the process encompasses making something, and an idea about what we do not have to make, for a better life. (Uta Brandes)

Although it is rare to use the term 'function' in art, art is basically functional: it is for moving the heart and stimulating the mind, while design is for bodily activity. Art changes our use of the mind while design is a solution to problems. Art and design show different approaches to material. Understanding of material is significant in art because the mind is moved when the physicality of material is drawn out, while in design material is significant since its features are bound up with the use of design. In this regard. Lucius Burckhardt's "Design is invisible" improves upon the "Design is useful art" advocated by the mass media. Also applicable here is Lev Tolstov: "As art today is so distorted, bad art is considered good art, and we have lost our awareness of what true art is."

#### Public art and public design

If public art can be an art genre, can private art be one too? If public design can be a design genre, can private design be one too? Interesting here is 'public' in public art refers to 'public-ness of a place', while 'public' in public design refers to 'public-ness in possession'. Public art or public design should be thus interpreted as 'art placed in a public space' and, 'design for public property'. Public art refers to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such as sculptures and murals set in public spaces like government buildings, public parks, and along walks, (irrelevant in terms of ownership). whereas publicdesign refers to environmental facilities including roads, parks and walks, and facilities such as road signs, benches, stops, subway maps, public phone booths, street lamps mail boxes, traffic lights, and quardrails. We are living in a designed world. The objective of art and design does not change even if 'public' is applied to them. Some mistakes in art and design are often caused by confusion and disregard of their roles. As Bruckhardt said, public design is better when invisible. That is because the primary virtue of public design is to solve inconvenience for the general public. Can you bear it, if the landscape outside the window changes every morning, and the stairs you take everyday have different heights? We can ascend the steps indifferently, recollecting yesterday, and see the landscape as not so different from vesterday. We have to earn a living, bearing unpredictable happenings. Public design as inferior to art at times is a challenge, It would be nice if this complex brings about good public artworks, but regrettably, perhaps it will produce unnecessary decorations: such examples are product-shaped streetlights, a soccer ball-shaped flower pot, and a fence with the crane design. However, what we should consider are streetlamps with proper brightness, appropriate water supply and drainage for flower pots, and the removing of unnecessary fences before design. Function can be beautiful, but the beautiful might not function. Nevertheless, we try to replace function with beauty, sadly leaving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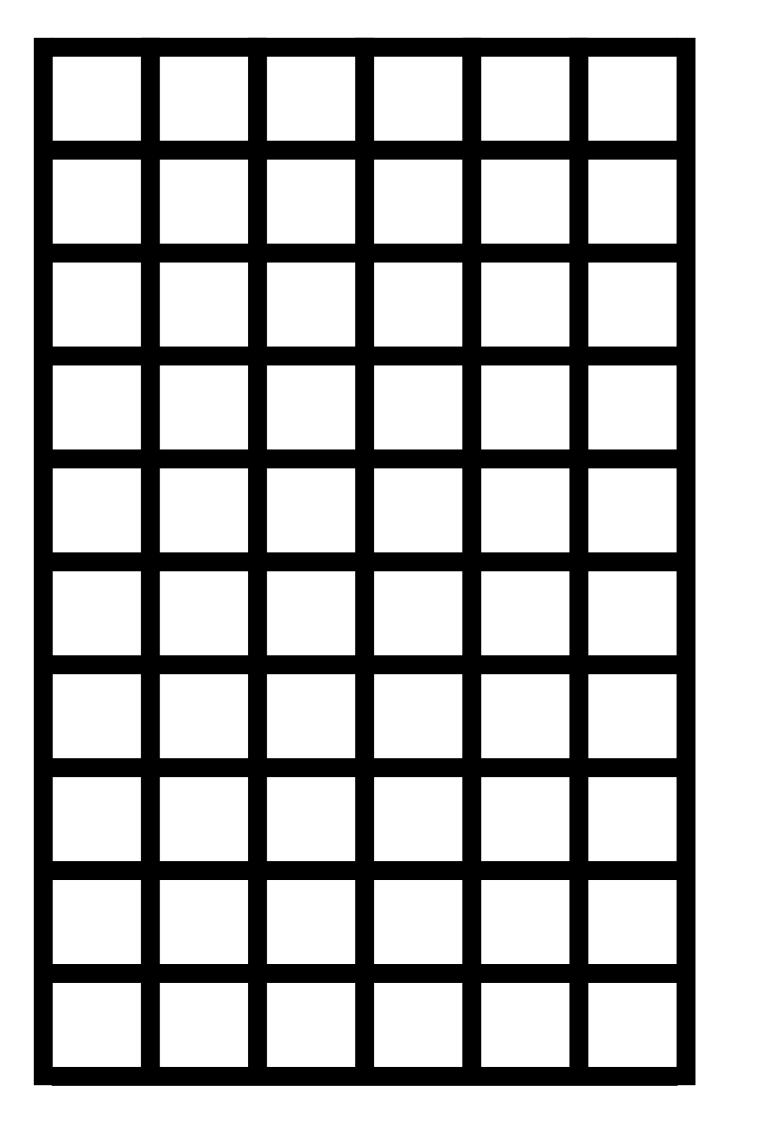
meaningless dec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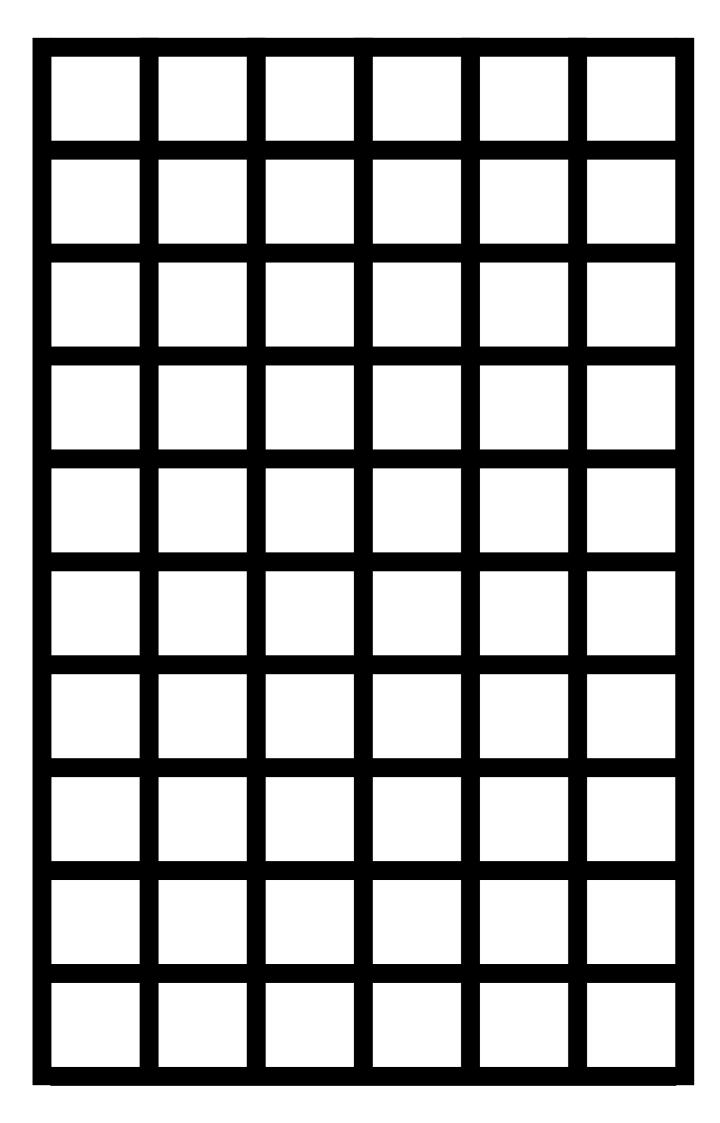
공공생활

요즘 대도시 도처에서 솟아나고 있는 건물들의 독특한 외피를 보고 있자면 건물주 개인의 자유나 도시의 활기로 묵과하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공해 요소가 가득하다는 느낌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파티복의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창조적이라 해도 집이나 직장에서 그것을 입고 생활하지 않는다. 디자인이란 대개 일상의 의식주에서 소비되는 것이다. 아울러 디자인이라는 단어의 함의는 원래,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이 더 선해지고 편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요즘 눈에 거슬리는 중뿔난 건물들은 공공의 암묵적 합의와 규율을 깨버림으로써 그 파격을 창의성으로 인정받으려는 불순한 속내를 숨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공미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실천들, 그 중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벽화운동의 경우 때때로 나는 그것이 '공공' 의 성격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어느 날 돌연 고즈넉하던 마을의 온 담장을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는 그 일련의 작업이 과연 마음 주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우며, 결국 마을의 풍경이 더 아름다워졌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저 하나만 돋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는 사물의 각축장이 될 때, 그곳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 과 '마음을 움직이는 미술'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건축가 루이스 칸은 "도시란 한 소년이 그 속을 거닐면서 자기가 일생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교시를 찾는 공간"이라고 했다. 그에게는 필라델피아가 그런 공간이었고, 나는 지금 나에게 그 공간이 어디인지 자문한다. 공공의 미술이든, 공공의 디자인이든 매한가지인 것은 그 서로 다른 두 활동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순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니 폐기물을 쏟아내는 공공의 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에겐 예술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발리 섬의 원시를 떠올려야 한다.

#### Public life

The unique outer appearance of buildings rising in a big city has an excessive number of elements so pedestrian eves become tired, even though they reflect a sense of freedom and enliven the city. People usually do not ware party dresses at home or in an office even if they are exquisite and original. Designis usually consumed in daily life. Moreover, design makes life fresh and convenient. Buildings offending our eyes reveal an impure intention, shattering unspoken public agreements and rules. I doubt practices conducted in the name of public art, especially a mural movement, suit the nature of 'publicness'. It is doubtful painting pictures on all walls in a quiet village make residents feel happy so the village scene becomes more beautiful. If our living environment becomes an arena of competition, and individuals strive to stand out, 'invisible design' and 'moving art' no longer exist. "A city is the place where a boy strolls and finds proper work he can do during his lifetime," according to Louis Kahn. Philadelphia was such as place for him, and I ask myself which place is as such for me. If public art or public design cannot function well in daily life, it is of no significance or, it becomes an enemy of the public producing waste. We have to recall the Balinese lesson: "We have no art. We just do our best as much as we can."





## 작가

#### 약력 artist profile

강익중 강익중/ 그가 가진 모든 것, 🗈 솔웨이 갤러리, 오하이오, 신시내티 광화의 꿈, 광화문 특별 프로젝트 1960년생(청주) 한국정부 주관, 대한민국, 서울

2007

2006

뉴저지 프리스터

2004

평화를 위한 작은 조각들, G8

태화강 특별프로젝트, 대한민국, 울신

어메이즈드 칠드런(Amazed

Children), 신시내티 어린이 병원

챈스 오브 스페이스(Chance

of Space), 프린스턴 문화위원회,

놀라운 세계(Amazed World)

2005, 무하메드 알리 센터 특별

해피 월드(Happy World).

프린스턴 지역 협력 공공

행운의 물건을 가진 부처.

스피드 뮤지엄, 케터키, 루이스빕

프로젝트, 프린스턴 공공도서관, 뉴저지

꿈의 달, WCO 특별프로젝트, 호수공원,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프로젝트, 유라시안 프랫 아트 인스티튜트 졸업 재단 주관, 독일 유니세프, 헬리겐담 / (MFA) 꿈의 달(Moon of Dream),

1984 후인대학교 서양화과 족언

(BFA) 개인전(또는 2인전)

2011 강익중 대 강익중, 포스코 미술관 대한민국, 서울

희망의 벽(Wall of Hope) 한라 병원, 대한민국, 제주도 2010 강익중: 산/바람, 알렉산더오크

갤러리 중국 베이징 강익중, 갤러리 현대, 대한민국, 서울 희망의 벽, 명지병원, 대한민국, 고양시/충남대학교 병원, 대한민국, 대전/ 아산병원, 대한민국, 서울 내가 아는 것,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중국 상하이 25가지 소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 갤러리, 미국, 뉴욕

특별프로젝트, 대한민국, 안산

행운의 물건을 가진 부처 답 항아리. 누퍼 와 파크쿠스트함레 그리고 그 외 작품들, 사비나리 갤러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도이 파르마세 멀티플 다이얼로그∞ 백남준과 강익중, 국립현대미술관 2002

밥 먹는 부처, 상하이 현대 번드 센터. 대한민국, 과천 강익중: 산/바람, 알렉산더오크 중국, 상하이 쾰른 파고다와 그 외 작품들 갤러리, 독일, 베를린 동아시아 국립 미술관, 독일, 베를린

강익중/ 거침없는 꿈; 코리안 2001 어페어, 앤드류 배 갤러리, 일리노이, 놀라운 세계, UN 특별프로젝트, 뉴욕주, 뉴욕시 희망의 벽, 경기도미술관

엔터 더 해븐(Enter the Heaven), 베를린 동아시아 미술관

1999 십만의 꿈, 통일을 위한 특별프로젝트 대한민국, 파주 통일공원

백남준/강익중. 아시아 미술 팩토리 독일, 베를린

모든 것을 한 데 합치고 더하라, 베니스 비엔날레. 이탈리아.

8,490일의 기억, 필립모리스 휘트니 미술관, 뉴욕주, 뉴욕시 365일 영어, 컨템포러리 아트 포럼. 초콜릿을 먹는 부처, 리크 메트로폴리탄 대학, 영국, 리즈

멀티플 다이얼로그, 백남준/ 강익중, 캠피언 휘트니 미국 미술관, 모든 것을 한 데 합치고 더하라, CAPP ST.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강익중, 3 x 3, 퀸즈 미술관 영어를 배우는 부처, 아시안 아메리칸 아트 센터, 뉴욕주, 뉴욕시

더 많은 것은 더 많은 것. 빙 리와 협업, 아멜리 A 윌레스 갤러리

사운드 페인팅, 메인 갤러리, 몽클레어 주립 대학, 뉴저지, 몽클레어 퍼블릭 퍼포먼스: 무제. 박상원과 협업, 이포크 갤러리 뉴욕, 브루클린

6,000점의 작품, 브로드웨이 윈도우

1987 3,000점의 작품, 테제 쇼, 프렛 미술대학, 뉴욕주, 뉴욕시 퍼블릭 퍼포먼스: 모든 사람이 오럴 섹스에 대해 생각한다,

한달 살기 퍼포먼스, 투투로우 갤러리, 뉴욕주, 뉴욕시 퍼블릭 퍼포먼스: 플라잉 페인팅, 오펜플라츠, 독일, 카셀

2012 50주년 기념전, 칼 솔웨이 갤러리. 오하이오 신시내티 겨울 겨울 겨울 봄, 경기도미술관. 대한민국, 안산

브롱크스리버 갤러리, 뉴욕, 브롱크스

1.000점의 작품 루아인레드 대화

브루클린 캠퍼스, 뉴욕, 브루클린

1986

1985

그룹전

포스트 네이처(Post Nature) 우민아트센터 대한민국 청주 예술이 흐르는 공단, STX 화력발전소, 대한민국, 안산

유워지에서 생긴 일. 경기 미술관 대한민국 안산 달은 가장 오래된 시계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서울

바닥, 천정과 벽, 칼 솔웨이 갤러리. 예술가와 달 항아리. 현대 갤러리. 대한민국, 서울 신(新)천재연, 여미지 식물원 대한민국, 제주도

초월: 한국 미술의 모더니티와 그 이후, 싱가폴 미술관. 싱가폴 균형 잡힌 지구를 향하여

뉴질랜드 테 파파통가레와 박물관

뉴질랜드, 웰링턴

쿤스트페스트 바이마르 (Kunstfest Weimar), ACC 개괴리 도이 바이마르 느요이 하구혀대미숙 alao 전당, 대한민국, 서울

뉴욕의 예술가 13인, UN 한국 미션, 뉴욕주, 뉴욕시

2005 회화 작품 만드는 30가지 방법, 칼 솔웨이 갤러리, 오하이오,

2004 선언(평화록 위하는 100 명의 예술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과천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보행자, 브롱크스리버 아트 센터

뉴욕, 브롱크스

100년, 100가지 꿈, 스페이스 월드 갤러리, 뉴욕, 브롱크스 드림 앤 리얼리티,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제 갤러리, 워싱턴D,C. 지구의 여백, 노이우퍼 및 파크 독일, 파르마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 비엔날레, 국립미술관, 아르헨티니 월드컵과 70인의 예술가 갤러리 현대, 대한민국, 서울

루드비히 미술관 신소장품전 루드비히 쾰른 미술관, 독일, 쾰른 코리아메리카 코리아. 아트선재센터, 대한민국, 서울

대륙 이동, 루드비히 아혠 뮤지엄 독일, 아헨 영감의 여섯 가지 단계, 버지니아 현대미술 센터, 버지니아

1999 쿠스트-벤터이 대하 르드베워 쾰른 뮤지엄, 독일, 쾰른 단어, 텍스트/ 영구 소장품 브롱크스 미술관, 뉴욕, 브롱크스 호랑이 해, 국립현대미술관.

1998 노트 어크로스 아시아(Notes Across Asia), 콘체르트 하우스, 독일, 베를린 호랑이 해, 베를린 세계 예술가의 집 아헨 루드비히 뮤지엄, 독일 내가 있는 곳(엑스포98) 갤러리아 유니지팔 다 미트라 포르투갑

리스본 아메리칸 스토리즈, 세타가야 미술관, 일본, 도쿄 광주 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대한민국 광주 오브젝티비티(Objectivity).

저스트 패스트(Just Past) / 영구 소장품, 1975-96, 현대 미술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이트 오브 차이나타운, 미국 중국 미술관, 뉴욕주, 뉴욕시

현대아트센터,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1994 오래되 역과 새로운 이야기 캡 스트리트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 산타모니카 미술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키 하바나 국제 비엔날레, 센트로 슬로우 아트, P.S.1 유지역, 뉴욕 롯아일랜드 시티 비가시성 해체하기, 에이 스페이스 갤러리, 캐나타, 토론토/아트 인 제너럴, 뉴욕주, 뉴욕시

1991

YORK 라우더(Louder) 이러나이대 Pratt Art Institute (MFA) 갤러리 400, 일리노이, 시카고

국제 아트 쇼, 이이다 미술관, 일본 중국, 홍콩 아트 센터, 홍콩 / P.S. 1 뮤지엄, 뉴욕, 롱아일랜드 인종주의에의 반대하는 예술가, 베드포드 스티베산트, 문화센터, 뉴욕, 브루클린 시계탑, 뉴욕주. 뉴욕시

Kang, POSCO Art Museum, 업타운 다운타운, 아시안 아메리칸 Wall of Hope, Halla Hospital, Jeju 아트 센터 / 시립 갤러리, 뉴욕주, 뉴욕시

2010

2007

언제나 함께, 브롱크스리버 갤러리. 개인의 역사, 마이너 인저리 뉴욕주, 뉴욕시

마이크로 맥스, 나우 갤러리 뉴욕주, 뉴욕시

여름 그룹전, 라서 갤러리, 뉴욕주. 뉴욕시

푸 전시(Fu Exhibition), 토탈

독립, 국립미술관, 대한민국, 서울

수상 경력/ 지원금

2012

족언색 공로상 프레미소대한 뉴유

치비텔라라니에리 지원금,

특별공로상, 제47회 베니스 비엔납레. 이탈리아 베니스

루이스컴포트 타파니 재단 지원금

1997 오늘의 젊은 예술가 상 한국, 문화부)

조안미첼 재단 지워금 1990/1994

뉴욕 아트재단 회화 부문 지원금

작품소장

구겐하임 미술관, 파리 유네스코, 경기도미술관, LA카운티 미술관 등

BORN in 1960, CHEONG JU, KOREA

lk-Joong Kang

Seoul, Korea

WORKING/ LIVING in NEW

Brooklyn, NY Asian Art, Berlin, Germany Hong Ik University (BFA),

and Other Works, s

Gallery, Los Angeles, CA

Ruddah Eating Rice, Shangha

Cologne Pagoda and Other

Contemporary at Bund Center,

Selected Project / One or Enter the Heaven, Asian Fine Two-Person Exhibition Arts Berlin, Berlin, Germany 1999: 100 000 Dream Special Project for the Korean Ik-Joona Kana vs Ik-Joona Unification. Pa Ju Unificatio Park, Korea

Kang, Asian Fine Arts Factory Berlin, Germany Ik-Joong Kang: Mountain /Wind. Alexander Ochs Gallery Throw Everything Together Beijing, China

and Add. Venice Bien

England

1994

Champion CT

Multiple / Dialogue, Nam

June Paik / Ik-Joong Kang,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a

Throw Everything Togethe

& Add, CAPP ST. Project, San

Seoul, Korea / Myongji Hospital, Pavillion, Venice, Italy Goyang, Korea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8.490 Days of Memory Things I know, Korean pavillio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at in Shanghai Expo, Shanghai, China 25 Wishes, Korean Gallery at Philin Morris, New York, NY 365 Days of English,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NY

Moon Jars. Neuffer am Park Kunsthalle, Pirmasens, Germany Multiple / Dialogue ∞. Nam June Paik and Ik-Joong Kang, National Museum of Ik-Joong Kang: Mountain /Wind, Alexander Ochs gallery, Berlin, Germany

Ik-Joong Kang, Gallery Hyund

Francisco, CA 2008 Dream: The Korean Affair. Ik-Joong Kang, 3 x 3, Queens v Bae Gallery, Chicago, IL Wall of Hope, special Project Buddha Learning English. for Kyungkido Museum of Art, Asian American Art Center, New Ansan, Korea York, NY

More is More, Collabo k-Joong Kang / Everything He has, Carl Solway Gallery. Bing Lee, Amelie A, Wallace Gallery, innati, OH Mountain / Wind, Special Project

Ssound Paintingss, Main Korean Government, Seoul, Korea Small pieces for Peace, Gallery, Montclair State College, Special Project for G8 Summit. Montclair, NJ Public Performance: UNICEF Germany, Heiligendamm Untitled, Collaboration with Sang-Moon of Dream, Special Project College, Montclair, NJ Public Performance for Tae Hwa River, Ulsan, Korea Untitled, Collaboration with

Hospital, Cincinnati, OH Chance of Space, , Princ 6,000 Works, Broady Cultural Council, Princeton, NJ Gallery, New York, NY

Amazed Children, Special

Amazed World 2005, Special

with WCO, Ho Su Lake, II San, Korea

Buddha with Lucky Objects

2004, Speed Museum, Louisville, KY

Project for Muhammad Ali Center, Art Institute, New York, NY Public Performance: Everybody Thinks Oral Sex, Happy World, Public Project with Moon of Dream, Special Proje

3,000 Works, Thesis sho

Brooklyn, NY

Buddha with Lucky Objects One Month Living Gallery, New York, NY Public Performance: Flying Paintings, Openplatz, Kassel,

> 1985 1,000 Works, Long Island Brooklyn, NY

> > 50th Anniversary

Amazed World, special Proje Selected Group Exhibition for United Nations, New York, NY 2012

> Exhibition, Carl Solway Gallery Cincinnati, OH Winter Winter Winter Spring, Kyungkido Museum of Art, 2011

Post Nature, Woo Min Art Center, Nam June Paik / Ik-Joong Art in Factory, STX Corpor Ansan, Korea

> Works in the Open Air, Moon is the Oldest Clock.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s Seoul Korea

Floor, Ceiling and Wall, Carl Artist and Moon Jar, Gallery Buddha Eating Chocolate Hyundai Seoul Korea New Chunjaeyeon, Yeomiji Botanical Garden, Jeju-Do, Korea

> 2008 and Beyond in Korean Art, Moving Towards a Balanced Earth, 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 Wellington, New Zealand

Kunstfest Weimar, ACC Gallen eimar, Germany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New York,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 13 Artists in New York,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New

Thirty ways of making painting, Carl Solway Gallery Cincinnati. OH

2004 Declaration (100 Artists for Peace), National Museum of Kwang Ju Biennale, Citiy Pedestrian, Bronx River Art

100 years, 100 dreams, space Dream and Reality. Gallery, Washington D,C. Der Rest der Welt, Neuffer in Park, Pirmasens, Germany

> Buenos Aires International Biennale, National Museum of Arts, 70 Artist around World Cup,

Neuerwerbungen aus der sammlung Ludwig, Museum Ludwig Cologne, Cologne, Germany Koreamerica Korea,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Six Degrees of Inspiration, Contemporary Art Center of Virginia,

Virginia Beach, VA Kunst-Welton in Dialog,

> Words Tayte and meaning in the Permanen Collection, The Bronx Mu the Arts, Bronx, NY Year of the Tiger, National Musuem of Contemporary Art

> > 1998 Museum, Seoul, Korea Notes Across Asia, Konzerthaus Year of the Tiger,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Museum Lugwig, Aachen, Germany Where Lam (Expo 98) Galeria Alumni Achievement Municipal Da Mitra, Lisbon, Portugal

American Stories, set Fellowship, Italy Museum, Tokyo, Japan Kwang Ju Biennale, citiv Museum, Kwang Ju, Korea Objectivity, Contemporary

Just Past/Permanent Collection, 1975-96, The Museum of Conter Angeles, CA

Center, Virginia Beach, VA

Sites of Chinatown, Museum of Chinese in the America, New York, NY

1994 Old Glory, New Story, Capp Street Project, San Francisc CA / Santa Monica Museum, Santa Monica, CA Solomon R. Guagenheim Biennial, Centro Wifredo Lam

Habana, Cuba New Expressions in Asian

Slow Art, P.S.1 Museum, Long Island City, NY

Center, New York, NY

Dismantling Invisibility, A Space Gallery, Toronto, Canada, Art in General, New York, NY

Louder, University of Illinois, Gallery 400, Chicago, IL International Art Show, lida

Food, Hunterdon Art Center China, Hongkong Art Center, Hong Kong P.S. 1 Museum, Long Island Artist Against Racism. Bedford Styvesant, Cultural Center, The Clocktower, NewYork, NY

Uptown Downtown, Asia American Art Center/City Gallery,

Togetherness Always, Bronx

Personal History, Minor Injury

1986 Micro Max, Now Gallery, New

New York, NY

Summer Group Show, Lasser

Fu Exhibition, Total Gallery, Independent, National Art

Award / Fellowship

Award, Pratt Art Institute, New Yor Civitella Ranieri

Special Merit Award, 47th Louise Comfort Tiffany Today's Young Artist Award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 Korea)

The Joan Mitchell

New York Foundation of Art Fellowship in Painting

Collection

Museum, NY / UNESCO, Paris, France / Kyung Ki Do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Y / Samsung Museum, Seoul Korea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CA

Hyun-Sook, Hong ETC. 흥현숙 기타 2011.08.22-09.06 2011 몽골 레지던시 프로그램 M.A., Dept. of Plastic Art.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참여(2주 여행 & 작업) Graduate School of Fine 졸업 Art. Hongik University 2010 09 21-12 21 1982 노르웨이 USF Verfet study of set design in 무대디자인 공부 국립중앙극장 residency program 참여(3 National Theater of Korea 개월 거주) (one year), teacher; Dong Jin Kim (set designer of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2010.11.1-11.13 NationalTheater 베르겐, 런던, 모로코, 리버푹에서 '앤체 닥'이라는 B.A., Dept.of Plastic Art, 개인전(2005년 이후) 주제를 가지고 여행 & 작업 Hongik University 2010.10.8-11.14 2010.06.26-07.18 제10회개인전 4개의 기둥과 우즈벡의 사마르칸드와 12개의 창문, Stiftelsen 3,14 타쉬켄트, 독일의뒤셀도르프 여행 & 작업 10th solo exhibitio Four pillars and twelve 2006.12.06-12.19 제 9회 개인전, 비니루방, 관훈 Stiftelsen 3,14 gallery, Bergen, Norwa 갤러리, 인사동 2006.12.06-12.19 2005.8.8-8.23 the 9th solo Exhibition 제 8회 개인전, 풀과 털 Vinyl Room, Kwhanhoon Gallery 풀, 인사동 2005.8.8-8.23 the 8th solo Exhibition, 기획전(2009년 이후) Grass and Fur. Pool Insadone 2011 10 19-11 13 과하무에서 긴은 있다 개리기 Group Exhibition (since 에무, 서울 2009) 2011.09.21-10.30 Cheongju Interna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청주 Craft Biennale, Cheongiu 2011 09 06-09 13 2011.09.06-09.13 타일 에 스페이스저 유리바타리 Time& Space, Ulanbator, 몽골 Mongolia 2011-03-03-3.16 2011.03.03-3.16 liquid Moon '(Handok AC), liquid Moon(한독 교류), 급천 Geumcheon Arts Factory ps 333. Seou 2010.11.1-11.13 2010.07.15-2010.08.21 Bergen, London, Morocco 기념비적 여행. 코리아나 미술관. 스페이스 씨, 서울 2010.07.15.-08.21 Monumental trip, Koreana 2010.06.26-07.18 Museum, Space C. Seoul, Korea liquid Moon(한독 교류) Plan-D 갤러리, 뒤셀도르프. 독일 2010.06.26-07.18 Lliquid Moon (Handok AC), 2009.11.18-11.29 Plan-D Gallery, Dusseldorf, Germany 대구텍스타일 아트 도큐멘타 2009.11.18-11.29 대구문화예술회관 Daegu Textile Art Documenta, Daegu Culture and 2009 11 11-11 29 청년 미술프로젝트 대구 KT&G별관 2009.11.11-11.29 Youth Arts Project, Daegu 2009.09.04-09.13 서울무지개전,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2009 09 04 09 12 Rainbow of Seoul, Munhwa 2009 09 05-11 01 광장유회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경기도 2009 09 05-11 01 2009.06.24-07.0 Play in square, Ansan Culture 공가 공갈단, 전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2009 06 24-0707 Gang of lie and Empty Seoul Etc 2011.08.22-09-06 Participated in 2011 Mongol residency program 2010.11.1-11.13 Bergen, London, Morocco from Liverpool Travel and working with the theme of liquid Moon

Lee, JooHo 이주호 Graduated from Applied 이화여자대학교 생활미술학과 art, E-wha woman's 졸업 University Solo Exhibition 개인전 2010 2009 Wangsibri, moro 2009년 왕십리, 모로갤러 2008 2008 사계四季. 미술공간 현 4 season, hyun gallery, seoul flower's story, Insa art cent 꽃. 이야기, 인사아트센터 꽃, 피다. 인사아트센터 print exhibition, kwanhoo 판화개인전, 관훈갤러리 1996 판화개인전, 인데코갤러리 print exhibition, Indec 단체전 Group Exhibition 서울무지개, 문화일보미술관 Seoul rainbow, munhw newspaper gallery 2007 아람미술관 개관전, 꽃, 그 Flowers, aram art cente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람미술관 Artist's book, gana art space 화가가 만든 책, 가나아트스페이스 1996-1999 Wolin Print exhibition 월인판화전, 인데코갤러리,동주갤러리 1993-1996 종로갤러리,관훈갤러리 1993-1996 후기모파화전 서호객리리 Seoul Print Art Fair-selected 과호갤러리 이사갤러리 서울판화미술제 선정작가전 lee-joo-ho@hanmail.net

2010.09.21-12.21

2010.06.26-07.18

Participated Norway USF

Verfet residency program

Travel & Tasks in Uzheks of

Samarkand and Tashkent,

Dusseldorf Germany

회화과 석사 1994-7 개인전 2012 2010 2008 2007 2006 2005 2004 1996 기획전 2011-12 2011 2010-11 **잔하시민산** 아≡스페이스 중\*

로드 아일랜드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드로잉 1998-2012, 두산갤러리\* 회색하늘, 두산갤러리. 뉴욕 AZ, 갤러리 엠 BCGKMRY, 국제갤러리\* (?\_?)(=\_+)(+\_+), 코리아아트센터. 파랑, 초록과 빨간, 김진혜 갤러리 홈스위트홈,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밧\* 검정펜과 파란하늘, 김진혜 갤러리 스크림, 원앤제이 갤러리 박미나, 신도리코 문화공간\* 5=1, 갤러리 밤 박미나 배수홍 갤러리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미국\*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 프로젝트,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안산\* 5C5C, 국제현대예술센터, 로마, 도가도비상도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카운드다운, 문화역서울 284 ( Buy One Get One Free 5C5C. 상상마닷 갤러리\* Fahion into Art, 삼성미술관 파라노이드 씬, 인터알리아

제10회 쌈지스페이스 오픈스튜디오, 쌈지스페이스\* 라마라마딩동, 아뜰리에 에르메스\* 2008-9 백남준 페스티벜: Now Jump,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 용인\* 자연스러운 풍경, 쌈지아트콜렉션 전시장, 경기도 파주 싹지스페이스 1998-2008전 쌈지스페이스\* B Side, 두아트서울\* 박미나, 신소영, 노화랑\* Up to the Minute MeeNa & Sasa[44] Kukie 080307-080406, 국제갤러리\* 다섯 개의 시선, 코리아아트갤러리. Have You Eaten Yet?: 2007 아시안 아트 비엔날레 대마궁리미소과 타이주 대마\* 제2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2007, 경기도 안양\* Young Artist with SJSJ, 한국현대미술100인:1970-2007 코리아아트갤러리 부사\* 딜레마의 뿔, 일만미술관\* 드로잉 오픈 엔드, 제2교사갤러리 한국종합예술대학교 미술관\* 2006.7 큐레이터의 사물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잘긋기전, 소마미술관\* 박미나, 팀애반과 마이크 박, 린트아트, 센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미국 항애잌지. 영유미술관 경기도 광주 보이스 클럽, 리트아트

2010

Oblique Strategies রুমাঝ্রন্থ

유원지에서 생긴일. 경기도미술관\*

영은미술관 10주년 기념전.

Remind-그곳을 기억하다,

Transformation SHMEDA

문화센터, 빅토리아 가스테이즈, 스페인\*

색깔의 힘, 경기도미술관/단원보건소,

Monument to

경기도 안산\*

가가와, 일본\*

2009

현재 위치 (춤으로), 페스티벌 봄\*

박미나

-----

헌터 대학, 뉴욕 시립대학원

Double Fantasy, 마루가메 Packed/Unpacked: . 쌈지미술창고 제1회 이노쿠마 겐이치로 현대미술관, 쌈지콜렉션, 쌈지미술창고, Monument to Transformation, 프라하 시립 새로운 드로잉…선이 도서과 객러리 프라하 체코 페이지에서 떨어지다. UTS Pulsating Rhythm, #19 갤러리 시드니 호주\* Hilchot Shchenim B. 이스라엘 현대미술갤러리 텔아비브 이스라엘 디지털 아트센타, 훌륭, 이스라엘\* 2003-4 아트 스펙트럼2003, 삼성미술관 호암아트홍\* 2003 피지 비엔날레 파빌리온, 가벧-부레스터 아트갤러리. 뉴플리뮤트, 뉴질랜드\* 에너지 프로젝트 스페이스 진 상하이 새로운 도시 인테리어. IADE, 상하이, 중국\* 양광찬란:햇빛 쏟아지던 날들 아트선재, 비즈아트, 상하이, 중국\* 가족오락, 가나아트\* 미술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미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쌈지 4기 작가 오픈 스튜디오. 쌈지스페이스\* 블라이스 +, 두 아트 이머징 IV: 미나와 Sasa[44], 쌈지스페이스\* 2002 Coming to Our House ≅≅ 파운데이션 네오 페인팅, 영은 미술관 경기도 광주\* 성낙희, 박미나, 대안공간 루프 방. 갤러리.니 릴레이 릴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전시도록이 있는 전시입니다.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경우. 출판지역 혹은 전시지역은 서울입니다. 센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영은미술관 소장품, 영은미술관.

한국의 젊은작가등, <sub>에테홈</sub>

코스모 코스메틱스, 스페이스 씨\*

취리히 스위스

뉴욕, 미국

토탈미술관\*

코펜하겐, 덴마크\*

워드플레이, 줄리살 갤러리.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서울 지금까지, 살로턴보그 전시장. B FA1997 PaintingRhode Island 역으 2005 레지더시 1부 School of Design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후렴구: 발칸-오사카-한국. Solo Exhibitions 정수진, 스티븐 곤타스키 Drawings 1998- 2012, Doosa 반미나 국제캠리리\* Grav Sky, Doosan Gallery, New York, US A7 Gallery em 2010 BCGKMRY, Kukje Gallery\* (? ?)(= +)(+ +) Koreart Center, Busan, Korea\* Blue, Green & Red, Kim Jinhye Gallery Home Sweet Home, Project Space Sarubia Dabang\* Black Pen and Blue Sky. Kim Jinhye Gallery Scream, One and J. Gallery 2004 MeeNa Park, Sindoricol Gallery\* 5=1, Gallery Biim\* MeeNa Park, Benson Hall Gallery Group Exhibitions Have You Eaten Yet?-2007 2011-12 Art in Industrial Complex The-Inch Glle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Gyeonggi-do, L'Arte Contemporanea, Rome, Italy\* 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 Gwangiu Design Biennale Gallery, Busan, Korea 2011, Gwangju, Korea\* Countdown, Culture Station Seou Ilmin Museum of Art Buy One Get One Free, Shinsegae Gallery 5C5C, Sangsangmadang Gallery\* Fashion into Art, Plateau, 2006-7 Samsung Museum of Art \* Paranoid Scene, Interalia An Company\* 2010-11 Good Citizen Award, Art Space Pool\* Francisco, CA, US The Logbook, Youngeun Museu of Contemporary Art, Gwangju,

First Peak: Young Artists MeeNa Park Oblique Strategies, Kukje from Korea, Entenhalle, Zurici Works in the Open Air, Switzerland M FA 1999 Cosmo Cosmetic Museum o PaintingHunter College, Ansan, Gyeonggi-do, Korea\* Coreana, Space C\* Remind, Youngeun Museum of Word Play, Julie Saul Galler Contemporary Art, Gwangju, Gyeonggi New York, US do Kores\* Seoul: Until Now! You are Here (In the Form Charlottenborg Exhibition Hall, of Dance), Festival Bo:m\* Monument to Transformation, Centro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5 Residency, Youngeun Museum of The Power of Color, Gyeong Refrain: Balcan-Okinawa Museum of Modern Art & Ansan Korea, Total Museum of Danwon Health Center Ansan Gyeonggi-do, Korea\* Suejin Chung, Steven Double Fantasy Manugami Gontarski, MeeNa Park, Genichiro-Inokuma Museum of Kukje Gallery\* ontemporary Art. Kanawa Jana Packed/Unpacked: 1st Monument to SSamzie Collection Transformation, City Galler Exhibition, SSamzie Art Prague Municipal Library, Prague Varehouse, Paju, Gyeonggi-do, Kore Czech Renublic New Drawing...the line fell Pulsating Rhythm, TheHeder off the page, UTS Gallery, Sydney Contemporary Art Gallery Tel-Aviv Hilchot Shchenim B, The Israeli SSamzie SpaceThe 10th Center for Digital Art, Holon, Israel Open Studio Exhibition, 2003-4 Rama Lama Ding Dong, Art Spectrum 2003, Samsung Museum of Modern Art\* 2008-9 Nam Jun Paik Festival: Now Fiji Biennale Pavilions, Jump, Nam June Paik Art Center. Govett-Brewster Art Gallery, New lymouth, New Zealand\* Yongin, Gyeonggi-do, Korea Energy, Project Space Zin Shanghai (Anting NewTown) In: Natural Landscape, ssamzie Exhibition, Shanghai Everbright Center Art Collection, Paju, Gyeonggi-do, hanghai, China Yangguang Canlan, Art Sonje SSamzie Space's 10th BizArt, Shanghai, China\* Anniversary, SSamzie Space Family Amusement, Gana B Side, doArt Seoul Comics in Art. Art in MeeNa Park, Shin So-Young Comics, Ewha Woman Unive Up to the Minute, Korea Art SSamzie Space Open MeeNa & Sasa[44] Kukie Studio, SSamzie Space\* 080307-080406, Kukje Galler Emerging IV MeeNa & Sasa[44], SSamzie Space Five Different Visions, Kores Art Gallery, Busan, Korea

> Asian Art Biennial,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Taichung Neo-Painting, Youngeun Museur Anyang Public Art Project Gveonagi-do, Korea\* The Show, Insa Art Space of the Young Artist with SJSJ, You Arts Council 100 Korean Contemporary Artists: 1970-2007, Korea Art Nakhee Sung, MeeNa Park, Alternative Space Loo The Horns of a Dilemma Drawing Open-End, 2nd Relay Relay, Insa Art Space of the Gallery, Korean National Universit Curating Degree Zero, Insa An A catalogue and/or brochure accompanied the

Coming to Our House, Darling

exhibition. Unless otherwise noted, Drawn to Drawing, SOMA the place of exhibition or publication is Seoul, Korea MeeNa Park, Tim Evan, and Mike Park, LincArt, S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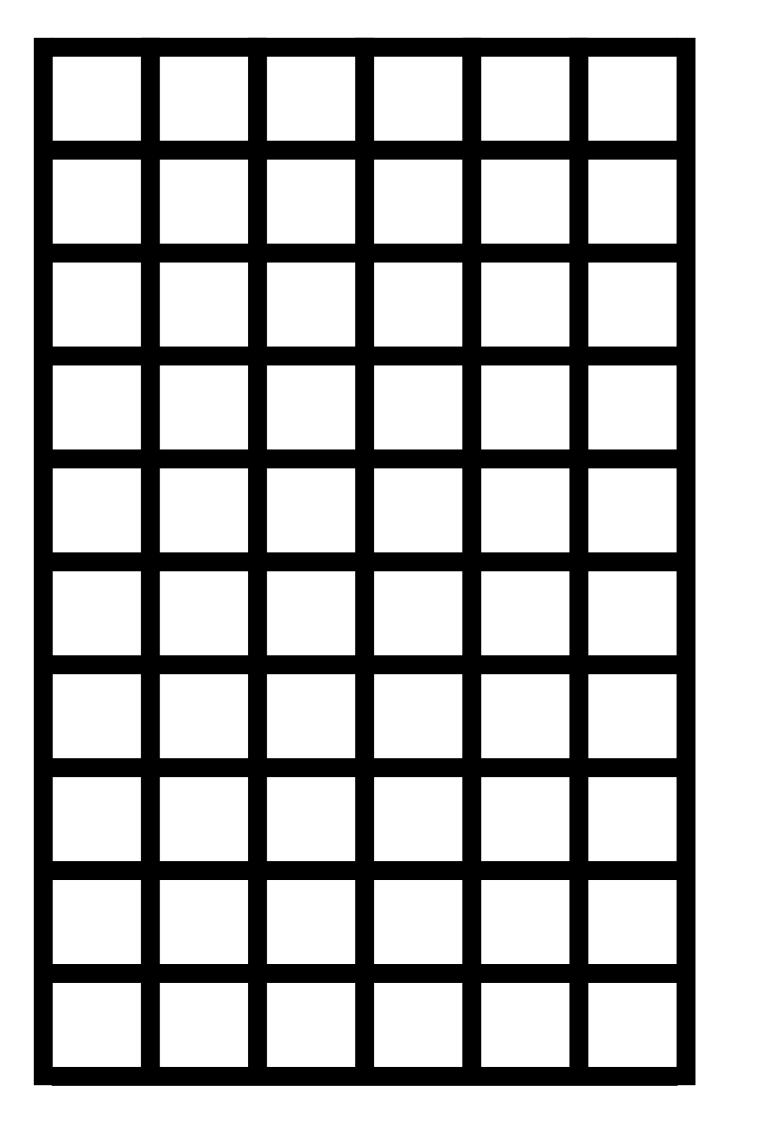
eonggi-do, Korea\* Boy's Club, LincArt, San Franci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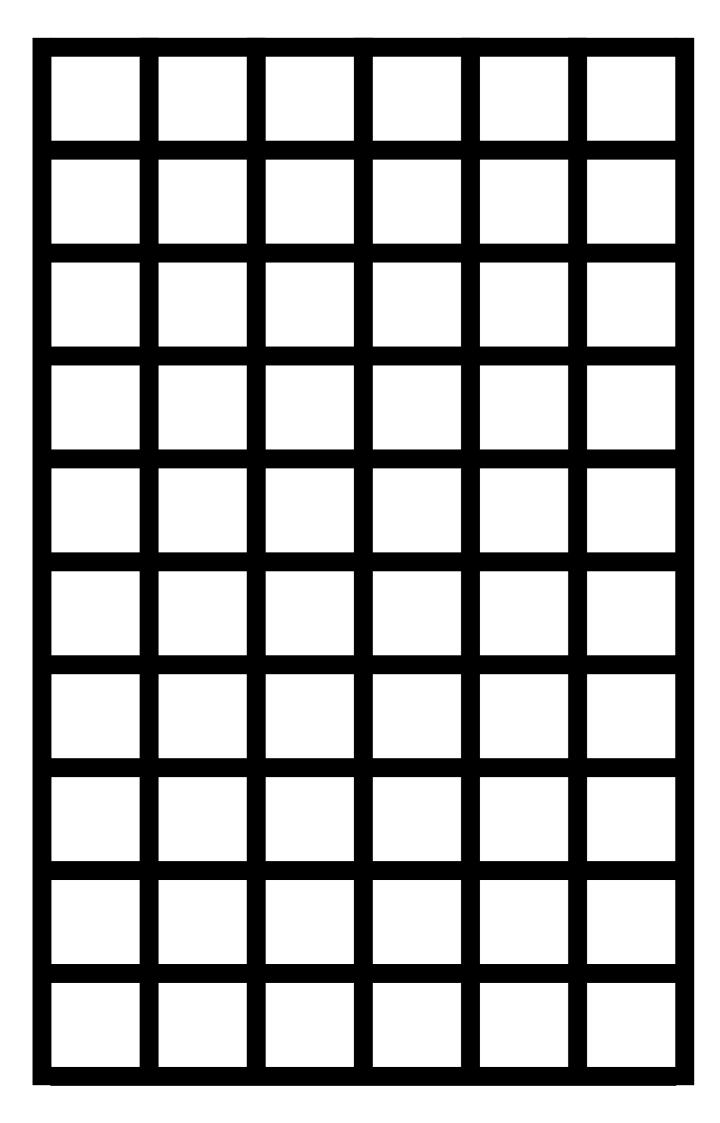
Permanent Collection of

Youngeun Museum of

Gwangju, Gyeonggi-do, Korea

Contemporary Art, Youngeun





예술이 흐르는 공단 2011

한뼘프로젝트

2011. 12.28-2012. 11.31

안산 반월공단 일대 STX에너지주식회사

해성아이다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참여작가 강익중

홍현숙 · 이주호

박미나

주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주관 후원

안산시

STX에너지주식회사 해성아이다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도록디자인 사진

\_\_ 서울예술대학 사진학과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양원모(팀장)

당당 큐레이터

총괄

교육

홍보

행정지원

디자이너

유수연번역회사

사인물 제작 및 설치 B&B디자인

태양광고기획

여견화

최혜경

윤가혜

전지영

오세형

곽병길

정승희

박중선

김태용

김도균

기종길(교육팀장)

백승원(행정지원팀장)

Type.Page: (www.typepage.com)

편진인 최효준 경기도미숙과 과장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인

경기도미술관 발행처 발행일

©2011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본 도록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프로젝트〉를 위해 경기도미술관이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경기도미술관

425-8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동길36(초지동 667-1) T.031 281 7000 F.031 481 7053

www.gmoma.org

ISBN 978-89-97375-02-8

2011 GMoMA Public Art Project Industrial Complex with Art Ten-Inch Art Project

December 28 2011 -November 13 2012

Ansan Industrial Complex :

STX Energy Haesung Aida Daihan Pham LTD.

Artist Kan Ik-joong

Hong Hyun-sook & Lee Ju-ho

Park MeeNa

**Organized b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Curator Yeo Kyung-hwan

Public Art Project in Charge

**Education** Choi Hye-kyung

Communications Yoon Kaehye Chan Ji-young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Yang Won-mo (Senior Manager) Oh Sei-Hyoung

**Curatorial Supports** 

Park U Chan (Senior Manager) Kim Ji-hee Hwang Rock-joo Kim Hyun-jeung Choi Ki-young

Administrative Supports Paek Seaing-won (Senior Manager) Kwak Byoung-kil Jung Seung Hee

Park Jung Sun Kim Tae Young (Designer)

Graphic Design

Type.Page: (www.typepage.com)

Photograph Kim Do-geun

Photography Department at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Translation

Art&Text

Editor Choi Hyo-joon (Director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Publisher

KwonYeong-Bean(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2011.12.30

©2011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This Catalogue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2011 GMoMA Public Art Project-Industrial Complex with Art b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No Part of this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ll Rights Reserved.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68 Donsan-Ro, Danwon-Gu, Ansan-City, Gyeonggi-Do, 425-866 Korea T. 82.31.481.7007-0

F. 82.31.481.7053 www.gmoma.or.kr

ISBN 978-89-97375-02-8